

송기주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rest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포켓몬 고〉가 바꾸어 놓은 보스톤니인들의 하루



운동, 카풀, 가족간 대화 ↑, 변화된 삶에 만족
안전사고, 사유지 침범 신고 사례 잇따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미국 전역이 〈포켓몬 고〉에 열풍에 휩싸인 가운데 보스톤에서도 그 열풍이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다. 〈포켓몬 고〉를 위해 운동을 시작한 사람부터 더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보스톤으로 원정을 오는 게이머도 생겼다.

〈포켓몬 고〉는 집에만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알렉스 사이드 씨는 〈포켓몬 고〉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평소에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포켓몬 고〉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고 말했다. 〈포켓몬 고〉의 아이템 중 하나인 포켓몬 알(Egg)로부터 얻을 수 있는 높은 레벨의 포켓몬은 2~5Km거리의 걷거나 달리기 속도만으로 부화하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예 슈바이씨는 자택이 있는 앤도버에서 보스톤까지 컴퓨터레일을 타고 원정을 왔다. 방학을 맞이한 그는 〈포켓몬 고〉가 출시되기 전에는 집에 틀어박혀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주된 일과였지만, 〈포켓몬 고〉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보스톤을 일주일에 두세번씩 방문하고 있다. 슈바이 씨는 “지금은 학교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개학이 되어 캠퍼스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포켓몬 고〉를 하고 싶다” 고 밝혔다.

〈포켓몬 고〉는 한인들의 생활 모습도 바꾸어 놓았다. 퀸시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는 양수지 씨는 〈포켓몬 고〉덕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 장보기에는 어김없이 부모님과 동행하고, 동생들과 몬스터나 아이템 정보 공유를 위해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다. 양 씨는 “인턴일을 시작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스톤 거리에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 열중하고 있는 한인들

할 시간이 많이 줄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포켓몬 고〉를 하면서 세대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동생들과도 대화가 많아지고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 ▶▶2면으로 계속

영화 '부산행' 22일 보스톤에서 한국과 동시 개봉

칸 영화제에서 뜨거운 호응
올 여름 최고 흥행 기대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다니는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 Train To Busan〉이 오는 22일 보스톤에서 한국과 동시에 개봉된다. 보스톤 상영관은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이다.

올 여름 최대 흥행작 유력 후보인 〈부산행 Train To Busan〉은 〈극성〉의 보스톤 흥행에 이어 또 한 번 보스톤 관객의 발걸음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배급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고속열차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100억원대 규모의 재난 영화다.

특히 〈부산행〉은 지난 5월 칸 국제 영화제에서 비경쟁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uelaw.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950**
에어캐나다 항공 (토론토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950.00은 에어캐나다 항공(토론토 경유) 요금으로 적용 출발일은 2016년 8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금액대의 좌석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예약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N.E. Prime Properties**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jung@ownnewengland.com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에서 10학년까지

HMart 맞은편에 위치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5.0075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경찰 <포켓몬 고> 범죄 노출 위험 경고

▶▶1면에 이어서
고 대답했다.

대학원생 알렉스 정씨는 <포켓몬 고>를 시작하면서 카풀을 시작했다. 자가차량을 가지고 있는 정씨는 평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했지만 최근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카풀을 시작했다. 멀고 시간이 걸리지만 아이템과 몬스터가 많이 출몰하는 로컬로드를 통해 귀가하는 것이다. 정씨는 “홀로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었는데, <포켓몬 고> 덕분에 카풀을 하게 되면서 인맥을 쌓을 수 있게 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포켓몬 고>의 열풍으로 인해 여러 이벤트도 기획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23일, 보스턴 커먼에서 <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모이는 이벤트가 생성되었다. 퍼레이드나 퍼포먼스가 아닌 단순히 게이머들끼리 모여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포켓몬을 잡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이벤트에는 13일 현재 4,300명이 참가의사를 밝혔고, 13,000명이 관심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로드 아일랜드의 인디아 포인트 공원, 뉴 베드포드의 버튼우드 공원등지에서도 23일과 31일이 각각 같은 목적의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포켓몬 고>의 인기만큼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주리주에서는 <포켓몬 고>를 하고 있는 게이머를 상대

로 강도사건이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포켓몬 고>를 즐기던 보행자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다. 보스턴 경찰 당국은 아직까지 <포켓몬 고>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매사추세츠 중부의 노스 브릿지(North Bridge)경찰 당국은 최근 도로 위에서 <포켓몬 고>를 하고 있는 게이머들이 있다는 신고가 여럿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의 메드웨이(Medway) 경찰 당국 또한 사유지 침범 신고전화도 최근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게이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7일 미국에서 출시되어 미국에서 연일 화제를 몰고 있는 <포켓몬 고>는 90년대 후반 게임, 카툰, 애니메이션 등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포켓몬스터(Pokemon)>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게임이다. <포켓몬스터>는 몬스터 불이라는 가상의 휴대용 케이스로 몬스터를 포획한 뒤 데리고 다니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포켓몬 고>는 이를 스마트폰으로 재현해 내었다. <포켓몬 고>는 발매되자마자 구글과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위를 휩쓸며 시장을 강타했다. <포켓몬 고>의 유통사의 모회사인 ‘닌텐도’의 주가도 14,935엔에서 4일만에 22,860엔까지 폭등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전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호평, 156개국 선 판매

▶▶1면에 이어서

부분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에서 2,500석 만석을 기록한 것은 물론 상영후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게 만든 작품이다. 통상 외신의 관심이 덜한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이었음에도 극장의 분위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배급사 측은 밝혔다.

프리미어에 참석한 티에리 프레모 칸 국제 영화제 집행 위원장 역시 <부산행>에 대해 “역대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작품이었다.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은 경쟁 부문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행>의 칸 영화제 시사칸의 관객 반응, 전세계 156개국으로의 선 판매 및 전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호평으로 인해 올 천만 관객 돌파 영화로서의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기도 했다.

<부산행>의 감독을 맡은 연상호 감독은 독립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2011)>으로 감독 중간에 초청 받은 이후 올해가 두번째 칸 방문이다. 장르와 표현 방식은 달라졌으나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 사회의 면면을 날카

롭게 파고든 연상호 감독의 독창적 연출력에 대한 칸의 애정은 똑같았다.

초호화 캐스팅 역시 <부산행 Train To Busan>에 대한 기대감을 한 층 높인다.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사랑 받아 온 연기와 배우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의성, 충무로가 주목하고 있는 블루칩 최우식과 안소희, 그리고 섬세한 연기로 칸의 마음을 녹인 아역배우 김수안까지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영화 속 제3의 주인공인 100여명이 넘는 감염자들도 가세해 한국 영화 사상 전대미문의 비주얼과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인다.

연상호 감독의 연출 아래 <곡성>으로도 유명해진 박재인 안무가와 3개월간의 혹독한 트레이닝과 40분이 넘는 시간으로 리얼한 분장을 완성해낸 광대용 특수분장 감독과의 협업으로 한국적인 정서로 감염자 비주얼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또한, 한국 최초로 LED 후면 영사 기술을 도입, 열차 안팎의 속도감과 현장감을 그대로 전해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를 도왔다.



미주 지역 상영관 정보 및 개봉 이벤트는 www.TrainToBusan-Movie.com과 www.facebook.com/HitKMovi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올해 창단한 매사추세츠 태권도 시범단 미국 챔피언십 우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태권도 시범단이 창설된 이래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홍순우 관장이 이끈 매사추세츠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내셔널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서 1위에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매사추세츠태권도 협회 정제형 관장 및 홍순우 관장이 선수단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에 앞서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는 지난 2월 22일 홍순우 관장을 시범단장으로 하는 매사추세츠 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발족했었다.

대표 시범단은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소속 각 도장 사범들로부터 12세 이상의 검은띠 유단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된 정예들이다.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는 먼저 추천받은

후보를 두고 서류심사를 벌인 후 기본동작, 시범 발차기, 품새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총 16명의 시범단은 남성 10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됐고 한국계를 비롯 다양한 인종구성으로 만들어 졌다.

정제형 태권도협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수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단에 문의는 협회사무실 (508.792.5534 또는 978.777.5435)로 하면 된다.

〈입상자 선수명단〉

Coach Alex Jeong, Captain Edward Jeong, Susan Lenz, Jessica Lee, Hyun woo Do, Anika Sukthankar, Lina Hong, Aabia Hasan, Connie Chong, Justin Blair, Brandon Duke, Colin Maher-Killelea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태권도 시범단이 창설된 이래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동서양만남〉영어 에세이 대회 작품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 세계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에세이 대회 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참가비는 \$20이다. 대상 1명에게 \$1,000의 상금이 수여된다. 고교생, 대학생 분야로 구분해 금,은,동상에 각각 \$300, 200, 100을 지급한다.

동·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제 7회 영어 에세이 대회를 주최해온 동화문화재단은 한국인에게 금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에세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에세이 주제는 여러 문화가 상호교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존중과 문화적 교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적응해야할 문화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되는 양면성을 어떻게 적절히 해결할 것인가 ▶문화적 상호 소통을 위한 인터넷, 대중문화, 네트워킹 같은 미디어의 역할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메일로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이 마감이다. 심사는 문학, 예술, 사회 관련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실시한다.

“매년 100여개 정도의 에세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현수정 동화문화재단 기획팀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수상하고 있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최: 동화문화재단
- ◆접수: essay@donghwaculture.org
- ◆참가비: 20달러
- ◆접수 기간: 2016년 6월 1일 - 9월 30일
- ◆정보 제공: http://eastmeetwestdonghwa.wordpress.com/ (가이드라인, 포스터, 참가신청서, 전년도 수상자 명단, 수상자 글 모음)

hsb@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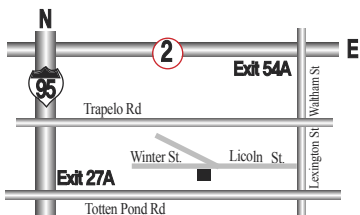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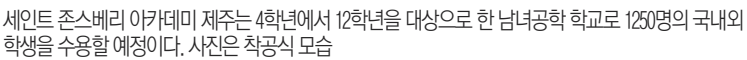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백 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4번째 학교로 선정됐던 세인트존스베리제주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의문제기가 시작됐다.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5월 12일자 편집자 노트를 통해 세인트 존스베리아카데미를 선택한 정부당국의 행정절차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영방송 KBS제주는 지난 6월 20일, 21일, 22일 3일간에 걸쳐 뉴스속보를 통해 준 정부기관인 ㈜해울(이하 JDC)이 〈명문 사립의 기준은〉, 〈바뀐 기준으로 유치〉, 〈본교에도 없는 교육과정의 도입〉이란 제목으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의 유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미국내 교육 평가 사이트의 평가를 기준으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가 B급이며 특별한 뛰어난 점이 없는 학교라고 지적했다. KBS 또한 JDC가 제시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의 우수성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JDC가 미국내 사립고등학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정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의 선정과정에서 별다른 소
득이 없자 국가별 평가 순위라는 기준



대신 학교 명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
과 유치가능성 등을 포함시켰다.

JDC는 “상위권 학교들이 대부분 제주 진출에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보인 상위권 학교들도 연간 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해 계약을 하기 어려웠다”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놨다. 결국 유치 과정에서 전문성 보다는 극도의 편의주의에 기초해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례다.

KBS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본교에도 없는 K-12학

교 과정을 교육시키며 로열티는 모든
과정 등록금의 3.5%를 받아가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국의 언론의 문제제기가 시작되면서 JDC에 대한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JDC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이사장이 경질되는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JDC를 국토부의 관리에서 제주도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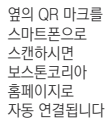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근로자들의 산재
보험에 해당하는 위크스 컴펜세
이션 보험요율이 올해 총 보험
액의 5.6%만 내도록 낮아진다.
새로운 보험요율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매사추세츠 노동 고용개발
행정청 산하 산업재해부가 근로
자들의 워커스 컴펜세이션 보험
을 관리하고 고 있다. 베이커 행
정부는 지난해에도 보험요율을
5.8에서 5.75로 인하했었다.

매사추세츠 위کم은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주법에 의해 모든 사업체들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위کم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의료비용은 물론 부상후 최초 5일간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hsb@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경악 YoungGak Shin
 공명악 JungWon Hong
 김은한 EunHan Kim
 백경주 YoungJoo Paik
 설희 Young Suk
 신영 Young Shin
 유영득 Heekyung Yoon
 이무득 My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앵겔라 Um
 정철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희상 HaSang Hong
 미형민 Myung Won Lee
 강동희 Donghee Jan
 김지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언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кс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오랫동안

어른엔
차게 드셔도
좋습니다!

여름철 기력회복엔 역시 홍삼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외로 양기를 빼앗겨 안다고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몸속은 양기가 차고 가격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최약한 참가를 보충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NEW

홍삼이 케어와 보습을 제공하여 기쁘고 활력을 줍니다.

여름철
여드름관리하기

홍삼 그어두 크림 / 홍삼 오버나이트 마스크

다들 물어봐요

타주보다도 배송 빠릅니다.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근처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로 주문 다뤄나 관하여 받으세요.
1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민원업무도 보고 전시회도 관람하고

보스톤한미예술협회 보스톤총영사관 전시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젊은 유학생 출신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보스톤 총영사관에 전시된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 주최로 열리는 전시회 <IMAGINATION>은 7월 14일(목)부터 9월 30일(금)까지 개최되므로 이 기간중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더불어 전시회 감상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SMFA(보스톤 미술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올해 졸업한 김사울씨와 김태병씨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들 젊은 미술인들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며 다른 문화와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통해 낯선 곳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술로 표현했다.

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2개 이상 학문 분야를 제휴하는 경계 예술(Interdisciplinary Art)를 공부한 김사울씨는 디테일한 드로잉과 자신만의 상상 속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그림 작품들을 보여준다. 학부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그 감각을 바탕으로 시각미디어아트(Visual Media Art)를 공부한 김태병씨는 사진을 오려 집을 만든 독특한 공간의 느낌을 살린 설치미술작품으로 전시장을 채운다.

이번 전시회 <IMAGINATION>은 주보스턴총영사관에 2015년 11월 한국 문화 예술을 알리는 전시 공간이 마련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행사다.

hsb@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브리스톨(Bristol)에서 열리는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미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브리스톨(Bristol)에서 열리는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퍼레이드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참여했다.

1785년에 시작한 이 퍼레이드는 올해로 231번째인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행사이므로 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미국의 독립 기념을 축하하는 행사다.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는 31명이 한국전 참전 용사 8명과 함께 참여하여 한인회기와 대형 성조기를 들고 행진했다. 특히 한인 여성 14명은 한복을 입고 성조기를 들었다.

행사 후 한인회는 워렌(Warren)에 있는



1785년에 시작한 이 퍼레이드는 올해로 231번째인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행사이다

Country Inn식당에 모여서 이날 퍼레이드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한인회원들에게 감사의 식사를 대접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해외 한국어 보급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

외국인용, 재외동포용으로 분리됐던 교과서 일원화
다만 재외동포 자생적인 한국학교는 현행대로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가 각자 추진해왔던 외국 한국어 교육을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한국학교들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외교부는 12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한국어교육은 문체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학당', 교육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원', 외교부가 재외동포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한국(글)학교'를 통해 추진해왔다.

이번 행방안은 분리되어 있는 교육체계를 세종학당으로 통합해 한국어 교과과정을 일원화하고 동시에 교원 연수 등도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 시행한다. 그러나 한국(글)학교는 민간자생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교사 연수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학교 협의회 중심의 연수를 고수한다. 다만 한국학교가 세종학당으로 전환을 원하면 심사를 거쳐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교육원 30곳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강좌를 '한글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일괄 지정한다.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 교재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의 신청이 있으면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교원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로 시행 중인 교원의 현지연수는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연수는 공동 시행을 통해 세계 한국어교육자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용과 외국인용 대상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한국어 교재 개발은 문체부(국립국어원)로 일원화된다. 이 같은 전환을 위해 문체부 내에 학계



한국에서 개최된 교사연수회 모습

, 현장교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인 '한국어교재편찬위원회' (가칭)를 운영한다.

해외 인터넷 환경이 무선통신망 중심으로 확충되고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현지 맞춤형 스마트러닝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세종학당 학습자 등에서 스마트폰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 등을 통한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교육 앱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이 온라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세종학당 누리집)이 온라인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의 허브사이트로 개편·확장한다.

정부는 해외 한국어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문체부와 교육·외교·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 (가칭)를 구성, 오는 11월부터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교재 개발 등 기능 조정과 관련 예산을 이관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세종학당은 2016년 현재 57개국에 143개소가 설립돼 있다. 또, 한국교육원은 17개국에 39개소, 한국(글)학교는 117개국에 1,875개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한국학교 종업식에서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바캉스에 체크! 알아두면 도움되는 저가항공사 이모저모

저렴한 만큼 항공사 별로 천차만별 정책 미리 체크해야
4성급 '제트블루', 가격 '스피릿', 라운지 '포터' 장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여름은 학생들의 방학과 바캉스 시즌을 맞이하여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의 많아지는 시기다. 하지만 국토가 넓은 미국에서는 여행을 떠나려면 항공권은 필수다. 이럴 때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에게 저가 항공사는 항공 여행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가 마냥 싸고 편리한 것만은 아니다.

〈저가항공사들의 일반적 특징〉

-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착륙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심에서 먼 소규모공항을 찾는다. (심지어 캐나다행의 얼리전트 항공은 항공기가 캐나다가 아닌 가까운 미국내 국경도시에 착륙한다)
 - 무료로 반입 가능한 가방의 크기가 작거나, 수화물칸에 실을 경우 인터넷에서 미리 결제하지 않으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 물이나 간단한 빵공이외의 식사는 유료다.
 - 좌석 간격이 일반 항공사들보다 좁다.
 - 일정수정 및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일반 항공사보다 비싸다. 환불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 ## 〈각 항공사 소개 및 특징〉
- 사우스 웨스트 항공 (Southwest Airlines) 미국에서 4대 항공사이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항공사 중에 하나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미국 남부에 노선이 많다. 이 항공사는 수하물 수수료를 받지 않아 2개의 캐리어도 무료로 실을 수 있다.

- 제트블루 (Jet Blue) 제트블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카이트랙스로부터 4성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의 항공사와 동급이다. 제트블루는 보스톤, 뉴욕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해 연안이나 남미등 국제선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 버진 아메리카 항공(Virgin America)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여행 중에 항공사에 불만이 쌓여 자신의 돈으로 전세기를 빌려 관광객에게 표를 판 것이 계기가 되어 창립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창립 배경 때문인지 서비스 품질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 스피릿 항공 (Spirit Airlines) 스피릿항공은 성수기에도 보스톤에서 마이애미까지 편도 100달러 항공권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초저가를 자랑한다. 그러나 무료 반입 수화물의 크기나 유료 수화물에 대한 정책이 매우 엄격해 주의의를 요구한다. 이에 2016년 미국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항공사이기도 하다.

- 포터 항공 (Porter Airlines) 캐나다 국적의 포터항공은 저가 항공사이지만 기내에서 와인이 무료로 제공되고, 전용공항인 빌리비숍 공항에서는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는 무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도 무료셔틀버스까지 있어 고객 선호도가 에어캐나다의 2배를 넘는다.

itshunne@bostonkorea.com

재활훈련은 물론 통증치료도 한다

닥터스통증 병원 올스톤점 개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통증치료전문 닥터스통증 병원(Doctors Physio)이 올스톤점을 오픈했다. 브루클라인점, 월담점에 이은 세번째 통증클리닉점이다. 윤창 원장은 “올스톤은 학생들이 찾기 쉬운 곳이어서 오랫동안 ‘눈독’ 을 들여왔던 곳” 이라고 밝혔다. 올스톤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이후 월담으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다.

닥터스통증병원 올스톤점은 39 Brighton ave, Allston, MA로 88슈퍼마켓과 오토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한의원장소다.

통증치료 전문의로서 30년의 교수 및 임상경력을 가진 윤창 원장은 미국에서 물리치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 5개주 물리치료 닥터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다. 브루클라인 통증클리닉을 맡은 이은혜 카



통증치료전문 닥터스통증병원(Doctors Physio)이 올스톤점을 오픈했다

이로프랙터는 서양의 한의학인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지압 요법) 박사학위와 척추, 신경, 스포츠 의학, 키테시오 테이핑 관련 라이선스 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곧 한의학 박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

윤창 원장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치료는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지



통증치료전문 닥터스통증병원(Doctors Physio) 윤창 원장

업소탐방 314

닥터스 피지오
(Doctor's Physio)

39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8:00-3:00(월-금)

만 닥터스클리닉은 재활훈련은 물론 통증을 치료하는 것까지 겸한다” 고 밝혔다.

닥터스 피지오에서는 크게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phy), 레이저 검사(Laser Therapy), 카이로프랙틱을 통해 신경, 뼈, 근육 등을 모두 다루며 진단하고 진료한다. 오십견, 두통, 목과 허리 통증, 급성 디스크, 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생리통, 하악관절 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을 레이저 치료, 운동치료, 뼈 교정, 신경 지압 등을 통한 치료와 함께 건강 밸런스도 맞춘다.

Aetna(PPO), Blue Cross Blue Shield(PPO), Cigna (PPO), HPHC(PPO), 학생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적용되며 내원 전 미리 전화해 문의하면 보험 적용 범위를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8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매사추세츠 최고의 해변 TOP 10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지난 주말 내내 보스턴의 날씨는 서늘했다. 하지만 보스턴의 여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7월의 마지막 주 날씨는 여름을 즐기기에 완벽할 것이라 한다. 멋진 여름날을 만끽하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매사추세츠의 해변 10곳을 소개한다. 이는 Boston.com에서 위치기반 SNS 포스퀘어(Foursquare)의 평점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1. Herring Cove Beach

최근에 새로 만든 샤워시설과 함께 생긴 구내 매점에서 랍스터 샐러드 롤, 폴드 포크 등 맛있는 간식거리를 판매한다. 이곳의 모래는 조금 거친 편이다. 따라서 비치샌들 대신 단단한 신발로 발가락을 보호해야한다.

주소: Province Lands Rd., Provincetown

평점: 9.21

키워드: 공공해변, 주차비용 \$20, 가족 친화적, 동물 친화적, 로맨틱, 레스토랑, 장애인 시설

2. Crane Beach

크레인 비치의 커다란 규모와 역사적 유산만큼은 매사추세츠 내에서 최고를 자부한다.

주소: 310 Argilla Rd., Ipswich

평점: Rating: 9.18

키워드: 공공해변, 주차비용 \$25 (차 없을 경우 입장료 \$2), 가족 친화적, 레스토랑, 장애인 시설

3. Nauset Beach

기존의 해변과는 다른 고유한 모험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동부해안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멋진 해안가 경치뿐만 아니라 서핑으로도 유명하다. 초보자용은 아니다. 어쩌면 물개 또한 만날 수 있다.

주소: Beach Rd., Orleans

평점: 9.08

키워드: 공공해변, 주차비용 \$20, 가족 친화적, 로맨틱, 서핑, 수상 스포츠, 레스토랑, 장애인 시설

4. Lambert's Cove Beach

가족이 하루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모래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작은 만과 물줄기는 어린아이들이 물장구치기에 좋고, 길다란 모래사장은 로맨틱한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성수기에는 웨스트 티스버리(West Tisbury) 주민에게만 공개된다. 방문객으로 이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램베르트 코브 인(Lambert Cove Inn)에서 하루를 묵는 것이다. 투숙객에 한해서 주민에게만 주어지는 해변 입장권을 제공한다.

주소: Lamberts Cove Rd., West Tisbury

평점: 8.95

키워드: 주민공개 해변, 주차: 주민허가증 필요, 가족 친화적, 수상 스포츠

5. Race Point Beach

매사추세츠의 해변 중 유일하게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선정한 미국 내 최고 해변 25개 중의 하나로 뽑혔다. 케이프 코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이 해변에는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주소: Race Point Rd., Provincetown

평점: 8.94

키워드: 공공해변, 주차비용 \$20, 가족 친화적, 동물 친화적, 로맨틱, 서핑, 장애인 시설

6. Cisco Beach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모두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해변이다. 해변가 주차장 바로 앞에 서핑 스쿨이 위치해 있어서 레슨과 장비대여를 제공한다.

주소: Cisco Beach Access Drive, Nantucket

평점: 8.94



Good Harbor Beach

키워드: 공공해변, 스트리트파킹 가능, 서핑, 수상 스포츠

7. Menemsha Beach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해변에는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모여든다. 전통적인 뉴잉글랜드의 낚시마을인 메넴샤(Menemsha)에 위치해 있어서 신선한 해물요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주소: Basin Rd., Chilmark

평점: 8.94

키워드: 공공해변, 제한적 주차공간, 로맨틱, 레스토랑

8. Good Harbor Beach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뉴잉글랜드 경치를 자랑하는 이 해변에는 평평한 백사장에도 불구하고 모래언덕이 있다. 밀물 때에는 하구만에서 물놀이를, 썰물 때에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기나 게 잡이를 즐기기에 좋다.

주소: Nautilus Rd. (at Beach Rd.), Gloucester

평점: 8.93

키워드: 공공해변, 주차비용 주중 \$20, 주말 \$25, 가족 친화적, 레스토랑, 장애인 시설

9. Hyannis Yacht Club

1938에 생긴 요트클럽으로, 지역적인 이벤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요트경기도 많이 개최한다. 스테이크와 해물요리를 제공하는 고급레스토랑이 있으며, 레스토랑 이용고객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하다. 인근의 씨스트리트 해변(Sea Street Beach)은 물 온도가 따뜻해서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해변이다. 물개가 종종 이 해변을 찾는다.

주소: 490 Ocean St., Barnstable

평점: 8.91

키워드: 수상스포츠, 공공해변(Sea Street Beach), 주차비용 \$20(Sea Street Beach), 가족 친화적, 레스토랑

10. Madaket Beach

난터켓 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 해변은 조용하면서도 멋진 풍광이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곳이다.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특히 수평선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초록광선을 실제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섬에서 가장 파도가 세기 때문에 서퍼가 아니라면 수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주소: 20 N. Cambridge St., Nantucket

평점: 8.89

키워드: 공공해변, 스트리트 파킹 가능, 가족 친화적, 동물 친화적(오전 9시와 오후 5시 사이 제외), 로맨틱, 서핑, 수상 스포츠, 레스토랑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턴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턴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제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10일 레드삭스에서의 첫 공식경기에 출전한 지글러는 템파베이전에서 1이닝을 2삼진으로 처리해 기대를 모았다. (출처: MLB.com)

올스타전 휴식 중에도 바쁜 레드삭스

김브렐 수술, 32시간동안 3건의 트레이드 단행
신인드래프트 1R 최대어 그룹과 계약은 난항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2016년 올스타전에 데이빗 오티즈, 잰더 보거츠, 무키 베츠,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를 포진시켰던 레드삭스는 올스타 브레이크 중에도 바쁜 행보를 보였다. 마무리 김브렐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 두 건의 트레이드, 그리고 신인드래프트 협상 난항 등이다.

크레이그 김브렐은 올해 레드삭스가 우승을 목표로 야심차게 영입한 리그 최고의 특급 마무리였다. 그러나 김브렐은 6월 하순부터 부진을 겪어왔다. 5일 텍사스 전에서는 1개의 아웃카운트도 잡지 못한 채 1피홈런 3피안타 4실점을 내주고 강판되는 등 최근 6경기 5.2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하여 10피안타 7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급기야 9일 김브렐은 훈련 중 타자들의 연습을 돕기 위해 외야에서 공을 받다가 왼쪽 무릎 연골 손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레드삭스는 즉각 김브렐의 수술을 준비하였다. 레드삭스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피터 애스니스 박사의 집도하에 이뤄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공식발표했다.

김브렐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보스턴은 마무리 자리를 긴급 수혈했다. 김브렐이 무릎에 통증을 호소한 지 불과 몇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빠른 행보였다. 레드삭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두명의 마이너리그 신인을 내주고, 올시즌 18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마무리 브래드 지글러를 영입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지글러가 애리조나에서 마무리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김브렐의 마무리 자리를 대신 할 것으로 보인다. 김브렐이 복귀한다 해도 불펜의 타자와 준이치의 부진과 카슨 스미스 부상으로 지글러의 불펜에서의 역할이 절실하다.

레드삭스는 김브렐 이외에도 또 다른 2건의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레드삭스는 지난 7일 밀워키에서 아론 힐을, 8일에는 클리블랜드로 부터 마이클 마르티네즈를 영입하는 등 불과 32시간동안 3건의 트레이드를 단행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론 힐은 3루수지만 내야 전 포지션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의 영입으로 레드삭스는 트레이스 쇼, 더스틴 페드

로이아, 헨리 라메리츠의 수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마이클 마르티네즈는 내, 외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유틸리티 맨이다. 그는 올 시즌 클리블랜드에서 9경기의 내야수비와 23경기의 외야수비를 소화했다. 엠엘비닷컴의 오스틴 레이먼스 기자에 의하면 레드삭스는 8월 1일까지 추가로 또 한명의 선발투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0일 열렸던 2016년 메이저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는 레드삭스가 1라운드 12번으로 지명한 좌완투수 제이슨 그룹(18)과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레드삭스는 350만 달러의 계약금을 제시했지만 그룹은 4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그룹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후보였지만 그가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흐르자 예상을 깨고 지명순위가 밀렸다. 올 시즌 2승 3패 방어율 0.77을 기록한 그룹은 39.2이닝 동안 피안타 15개에 그친 반면 탈삼진은 무려 90개를 잡았다. 최고시속 97마일의 직구를 히트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는 대학입학이 확정되어 있어 계약에 여유를 가지고 있다. 올 시즌 신인 계약 데드라인은 16일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GMO표기 거부한 3,000개 제품 버몬트 주에서 아웃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버몬트 주의 새로운 법안에 따라 3,000개의 제품이 식료품 체인점에서 제외된다. 식료품 공급업체 프라이스 초퍼(Price Chopper)는 버몬트 주 내에 있는 식료품 체인점에 GMO 라벨표기 법안을 따르지 않은 3,000개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버몬트 주는 모든 식료품 회사에 제품의 유전자 조작 여부를 라벨로 제작하여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버몬트 주의 새로운 법안으로 미국 내 환경 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프라이스 초퍼가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된 제품들, 가령 캐드버리 초콜렛(Cadbury chocolates)이나 엔트맨 도넛(Entenmann's donuts), 펩시(Pepsi) 제품들은 새로운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는데 드는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WCAX.com의 보도에 따르면 식료품점에서 더 이상 공급받지 않게 된 제품들로는 “델몬트 과일(Del Monte fruits), 호스테스(Hostess) 제품 일부, 치킨 오브 더 씨(Chicken of the Sea) 제품 일부, 사브라 후무스(Sabra Hummus), 하인즈 케첩(Heinz Ketchup), 사가 벨리 너츠(Saga Valley nuts), 밥 에반스 식품(Bob Evans foods), 루이지애나 피시 프라이(Louisiana Fish Fry) 제품, 씨 골드 씨푸드(Sea Gold Seafood), 스타벅스(Starbucks) 제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버몬트 주의 공화당 부지사 필 스콧(Phil Scott)은 WCAX.com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버몬트 주를 넘어 연방 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특히 다른 북동부 주들이 이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초퍼가 수천 개의 제품들을 더 이상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버몬트 주의 민주당원들이 모여 이 법안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몇몇 전문인들은 이는 불가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드는 셈이고, 줄어드는 선택권은 적은 경쟁을 뜻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불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인트미카엘 칼리지(St. Michael's College)의 경영학 교수 로버트 레토브스키(Robert Letovsky)는 이와 같이 분석하며 “노동자 계급의 가정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와 식품 운동가는 GMO에 대한 라벨표기 법안이 각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유전자 조작 여부에 대해 좀 더 유의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라벨로 이를 표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이미 내포한다고 전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GMO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빈곤 국가에서의 GMO농법 또한 반대해왔다. 이들의 반-GMO활동은 지난 6월 29일 108명의 노벨수상자들의 공개행위서를 통해 비판받은바 있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완화
- ② 두통, 편두통, 두통, 메니에르 증후군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관리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⑤ 소화장애, 변비, 폐경기 대장운동장애
- ⑥ 골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 ⑦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 ⑧ 기타 서양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다양한 질병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듭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시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자율운행 자동차 MA주는 불법

최첨단 산업 발전에 발목 잡을 수도
관련 법안 상원 상임위에서 심의 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최신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자율운행 자동차를 연구하기에 여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 자율운행되는 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시험하는 것은 법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율운행 차량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MIT 내에 2,500만 달러를 들여 자율운행 자동차 연구실을 만들었다.

이런 자율운행 자동차는 최종 단계에 이르러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드 자동차의 경우 미시건 대학과 손잡고 앤아버에 32에이커 규모의 시뮬레이션 타운을 건설했다. 이곳에는 자동차 신호와 보행 지역 등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 GM, 혼다, 도요타, 니산 등의 회사가 이 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

시간, 테네시, 워싱턴 DC 등은 자율운행되는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 주는 주지사의 특별 명령으로 같은 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나 타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자율운행 자동차의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는 자율운행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없다. 이 때

문에 부득이 회사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주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조이스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자율운행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라이언 그랜-돌 매사추세츠 교통부 대변인은 “자율운행되는 차량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은 매사추세츠 주 도로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조차 할 수 없다



보스턴의 상징이 된 시트고 간판을 랜드마크로 지정하자는 청원이 늘고 있다

보스턴 상징 시트고 간판 사라질 수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의 관문이자 상징처럼 여겨졌던 시트고(Citgo) 간판이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 시트고 간판은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이 왼쪽 담장으로 홈런을 칠 때마다 미국 전역의 야구팬들에게 TV를 통해 비춰졌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들에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다.

시트고 간판은 3,600 스퀘어 피트의 크기로 6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이정표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이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시트고 간판이 사라지거

나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시트고 간판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트고 간판을 랜드마크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청원에 지난 8일까지 4,700명 이상이 서명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보스턴 랜드마크 위원회는 시트고 간판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안건을 다음 예정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미 시트고 간판은 1983년에 랜드마크 지정이 거절된 적이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저가오농복, 서울설렁탕의 미션,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lBealSoup.com

Seoul or Seoul III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Market.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매, 렌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 NFL 델러스, 패트리어츠 6위

(서울=뉴스1) 손인호 인턴기자 =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으로 선정됐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3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50개 스포츠 구단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델러스는 스페인의 프로축구구단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포브스가 지난 201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 50'을 발표한 이래 축구팀이 아닌 다른 종목 구단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11년부터 2년 연속, 스페인 프리메라리가(LFP) 레알 마드리드가 2013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델러스의 가치는 40억달러(약 4조5772억원)로 평가됐다. 2위인 레알 마드리드와는

약 4000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

2015-16시즌 유럽 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 가치는 36억5000만달러(약 4조1766억원)로 산정됐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으나 프로축구 구단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인 FC 바르셀로나가 35억5000만달러(약 4조622억원)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4위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명가 뉴욕 양키스다. 양키스의 가치는 34억달러(약 3조8906억원)로 MLB 구단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들었다. 5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33억2000만달러)가 꼽혔고, 그다음은 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32억달러)가 선정됐다.

NFL은 델러스와 뉴잉글랜드를 비롯해 워싱턴 레드스킨스, 뉴욕 자이언츠,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까지 무려 5팀이나 '톱11'에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 Top 11

1. 델러스 카우보이스(NFL) 40억달러
2. 레알 마드리드(LFP) 36억5000만달러
3. FC 바르셀로나(LFP) 35억5천만달러
4. 뉴욕 양키스(MLB) 34억달러
5.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EPL) 33억2000만달러
6.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NFL) 32억달러
7. 뉴욕 닉스(NBA) 30억달러
8. 워싱턴 레드스킨스(NFL) 28억5000만달러
9. 뉴욕 자이언츠(NFL) 28억달러
10. LA 레이커스(NBA)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NFL) 각각 27억달러

newsson@news1.kr



최근 발표된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

'포켓몬 고' 100 팔려도 닌텐도에겐 10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포켓몬 고' 흥행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지만 앞으로는 '애플'이나 '구글'이 더 큰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비즈니스인사이드(BI)는 스마트폰 리서치업체인 센서타워의 데이터를 인용해 '포켓몬 고'가 최초로 공개된 지난 7일에만 애플 앱스토어에서 20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애플이 16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다운로드 행렬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지난 11일에는 애플이 23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인 앱 애니는 '포켓몬 고'와 관련된 애플의 일평균 매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일 것이며 연간으로는 10억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용자들이 '포켓몬 고'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앱 상에서 아이템 결제 등을 통해 큰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포켓몬 고' 관련 매출은 개발사인 나이엔틱을 비롯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에게도 분

배된다. 구글과 애플은 앱 상에서 아이템 구매 등의 매출이 발생하면 3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리서치의 데이비드 김슨 연구원은 "'포켓몬 고'는 나이엔틱과 포켓몬컴퍼니, 닌텐도에 의해 개발됐다"고 설명하며 "닌텐도는 포켓몬컴퍼니의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앱스토어에서 100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30은 애플이 가져가고 30은 나이엔틱이, 나머지 30은 포켓몬컴퍼니에게 돌아간다"고 분석하며 "나머지 10이 닌텐도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로 인해 '포켓몬 고'를 즐기는 아이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애플도 '포켓몬 고' 열풍에 편승해 닌텐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자는 '구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포켓몬 고'의 이용자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올리는 매출에 더해 나이엔틱 보유 지분을 통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나이엔틱은 구글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뒤 지난해 분사했다.

yung@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 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 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클린턴, 트럼프에 단 3%p로 앞서... 불기소 결정 영향준듯

아이오와선 트럼프가 우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3% 포인트(p)로 좁혀졌다.

12일 미 정치매체 더 힐에 따르면 NBC/서베이몽키의 전국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47% 지지율로 44%의 트럼프를 3%p 격차로 앞섰다. 같은 기관의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48% 대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클린턴에 대한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 FBI의 클린턴 불기소 권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82%는 클린턴이 사적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6%는 제임스 코미 FBI국장의 불기소 권고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코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답한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23%는 클린턴이 정

직하지도 신뢰할만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 대부분은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에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률은 62%였으며 클린턴은 그보다 2%p 낮은 60%를 기록했다.

NBC/서베이몽키는 7월 4~10일 전국 7869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 범위는 ±1.4%다.

한편 이날 CNN은 아이오와주에

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지지율 2%p 격차로 제쳤다고 보도했다. 맨마우스 대학교가 8~11일 아이오와 유권자 4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지율 44%로 42%의 클린턴을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패트릭 무레이는 "아이오와는 트럼프의 미 중서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오와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스윙스테이트로 미 대선 향방을 좌우한다.

yjw@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15일 러닝메이트 발표...펜스 주지사와 조찬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15일 러닝메이트를 발표한다.

트럼프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6일 0시) 맨해튼에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재적 러닝메이트로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

장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CNN은 트럼프 후보가 이날 펜스 주지사의 자택에서 조찬을 가졌으며 김리치 전 하원의장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또 크리스티 주지사와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캠프의 폴 매너포트 선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는 워싱턴을 잘 알고 의회와 상대할 줄 알며 대통령으로 비칠 수 있는 누군가를 부통령으로

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측근은 트럼프의 자녀들, 딸 이반카와 아들 도널드 주니어, 에릭 등도 아버지에게 김리치 전 의장이나 펜스 주지사 등 경험 많은 부통령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다음주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ejjung@news1.kr



한 무리의 시위대가 경찰의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벌이고 있다

美 델러스 참사에도 '흑인생명 소중' 시위 확산 격화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흑인을 향한 경찰의 총격을 규탄하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가 격화 양상을 띠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델러스에서 경찰 5명이 저격 살해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10일 항의 시위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지며 총 20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부분의 시위는 전날 밤까지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이날 세인트폴에서 전면 폭동으로 변질됐으며 총 102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시위대는 94년 고속도로를 점거한 뒤 경찰을 향해 돌, 병, 폭죽, 화염병, 철봉을 던지며 폭력 행위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관 2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교량 아래를 지나다가 한 시위 참가자가 머리

위로 떨어뜨린 약 11kg의 콘크리트에 맞아 크게 다치기도 했다.

시위는 배턴루지에서도 격화돼 총 125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이끄는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 디레이 매케슨은 전날 밤 배턴루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풀려나기도 했다.

세인트폴과 배턴루지는 지난 주 경찰의 흑인 남성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

이같은 항의 시위는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경찰이 흑인 청소년을 사살한 뒤 수개월 간 미 전역에서 이어진 폭동·방화 및 항의 시위를 연상케 하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흑백 인종 갈등이 재점화됐으며 경찰에 대한 공격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7일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마이카 존슨(25)이 경찰 5명을 총격해 숨지게 한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경찰에 가해진 최악의 공격으로 기록됐다.

icef08@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세계무역 예상보다 장기간 둔화... "보호무역 심화 탕"

경기침체 아닌데도 글로벌 거래 18개월 정체

(서울=뉴스1) 온다에 기자 = 글로벌 무역 거래가 18개월 이상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무역 둔화가 심해지면서 각국 정부와 이코노미스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글로벌 무역 거래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의 보호무역을 추적하고 있는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역 성장률은 2015년 1월부터 정체되어 있다. 올해 4월 세계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1월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도 무역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스위스 세인트갈렌대학교의 무역 및 경제 교수이자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사이먼 에브넷은 경제 역사에서 무역 거래 성장률이 이토록 부진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경기침체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 담당 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인한 세계무역 둔화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G20 회의에 앞서 세계 무역기구(WTO)는 보호무역 조치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또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현실은 흘러가고 있다고 에브넷 교수가

말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고, 중국이나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글로벌 트레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제품 생산 시 국산 부품만을 이용하게 하거나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차별적 조치는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조치의 81%가 G20 국가 정부들에 의해 이뤄졌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둔화 간의 악순환에 있다고 에브넷 교수는 꼬집었다. 보호무역 조치로 글로벌 무역이 둔화되면 줄어드는 무역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에 더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에브넷 교수에 따르면 보호무역으로의 변화는 이미 기업들의 사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에브넷 교수는 뉴욕대학교 연설에서 높아진 무역장벽으로 제너럴일렉트릭(GE)은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 전략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무역중심의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스스로 세계 시장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역화' 전략을 선택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의 보고서는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 부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부서는 매달 글로벌 무역 거래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hahaha8288@news1.kr



중국 장쑤성 쉰원강에 있는 한 항만



아마존 '7월의 크리스마스'... 프라임데이 주문 60%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올해의 핫딜 이벤트 '프라임 데이'에서 사상 최고의 날을 기록했다고 선포했다.

13일 프라임데이 판매를 마친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주문이 첫해 행사때보다 60%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행사 주문이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많았다고 확인했다. 판매액은 뉴욕 시간으로 오후 3시 기준 전년보다 30% 늘었다.

이번 행사에서 TV는 9만대 넘게 팔렸고 전기밥솥도 21만5000대 넘게 판매됐다.

그레그 그릴리 아마존프라임 부사장은 강력한 판매세에 "이러한 행사를 다시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래픽이 몰리면서 주문이 원활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이날 행사 초기 장바구니에 품목을 추가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행사는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프라임 등급의 회원은 연회비 99달러를 내면 빠른 배송과 각종 동영상 무료 접근할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강자인 월마트도 유사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아마존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체크하는 곳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디스의 찰리 오세아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 행사를 하면서 경쟁의 문이 더 열렸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지난 1년간 온라인 판매는 830억달러로 월마트의 135억달러를 압도한다.

미국의 연간 소매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통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가세일 방식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도이체 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전 세계의 아마존 프라임회원은 거의 6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icef08@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CRG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전4집 \$700,00, 주거전각 3072 sq. ft. (4bedroom)
501 콘셉트, Garden+indoor hard oak floor,
garage, central air,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complete with 4th fl.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ownhouse, 주거전각 2300sq, 대지전각 4000sq,
완전 학군, 잘 관리된 정원, Green line D 근처,
대지 0.35에이커의 위치, 풀 근접, 5 year New
입대전도, heating system, 집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풀 수급 약 65,000,
대지 전각 8500 sq.ft, 난방 \$5000



Newton \$1,300,000
2가구집주, 전수급\$84,500, 대지전각2000sq.ft,
입대전도, 풀이 있음
편하게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톤힐리지



Newton \$1,999,000
30년 새 집, 최고 학군, 주거전각 5800sq.ft,
대지전각 10900 sq.ft, 15년, 화장실 5개
Granite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 집, 앞 4대 화장실 3개, 완전 학군
보가드론 새 집 가격, 주거 전각 3890sq.ft,
대지 전각 7000 sq.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85,000
30년 새 집, 완전 학군, 편리한 교통,
편하게 보가드론 대지전각, 앞, 화장실 3개,
주거전각 1300sq.ft, 30년새 집은 한 층 높고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 집, 앞, 화장실 2.5개,
주거 전각 3000sq.ft, 대지 전각 1075 sq.ft,
Hourt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앞 1개, 화장실 1개, 주거전각 6700sq.ft,
전도 fee \$ 20000, Hot water(보일러)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 집 최고의 학군 앞, 화장실 4.5개
주거전각 4000sq.ft, 대지전각 17500sq.ft,
아주 비싼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사드 성주 배치, 수도권 방어엔 무용지물... '사드공백' 논란

軍 "수도권 방어 최적합 요격체계는 패트리엇"
무수단 고각 발사해 수도권 공략시 방어 어려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되면서 수도권의 '사드 공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요격거리가 2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사실상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과 주한 미군에 배치된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입장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km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km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킨드(사정 300~600km), 노동(사정 1000km) 미사일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패트리엇 미사일로 수도권 방어에 나선다면 그동안 정부가 북한

이 쏜 미사일을 막을 방패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미사일로 막을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부지 선정에 따른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느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사드 대신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망 안에 들면서 결국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수단미사일(3000~4000km)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엇 미사일의 속도로는 목표지점을 향해 낙하하는 무수단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무수단미사일의 최대 낙하속도는 마하 15~1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광역방어에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PAC-3 미사일의 임무는 핀포인트(pin point) 방어"라며 "사드가 막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로 PAC-3가 막아내는 것이지, 이 지역은 사드로 막고 저 지역은 PAC-3로 막는다는 것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수도권도 막을 수 있는 다른 광역방어망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40~150km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효과적인 무기 체계이고, 패트리엇은 20~30km의 주로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라고 말했다.

류 정책실장은 "수도권 근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전력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효과

적인 방어를 위해 개량한 패트리엇(PAC-3)을 수도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수도권 위협이 가중될 경우 패트리엇 체계를 수도권 방어용으로 전환배치하고, 미 전력을 증원 전개하는 등 '유연'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말에는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를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ng Joo (우 조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Lazy yakisoba!

쫄깃한 면발과 다양하고 맛있는 해물,
그리고 매콤함으로 입맛을 확 돋구어 주는
해물볶음우동을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U.S.D.A. CHOICE

FRESH
Sliced Beef Short Ribs (LA)
LA갈비
\$12.99
lb.

FRESH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안심
\$7.99
lb.

ALCHAN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 순대
1.5 lbs./pkg.
\$9.99

FROZEN
Cornish Hen
방동 영계
\$2.49
lb.

FRESH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49
lb.

FRESH
Marinated Sliced Pork Tenderloin Steak
양념 돼지고기 목살
스튜용크
\$4.99
lb.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9.99
lb

FRIGIDATISSIMO ONLY
15/16/17 ONLY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9.99
lb

Frozen
Salted Mackerel
저탄 고등어
\$3.99
lb

FRIGIDATISSIMO ONLY
15/16/17 ONLY

Frozen
Salted Mackerel
저탄 고등어
\$3.99
lb

SEA PRODUCTS
Half-shelled Mussels
반칸 홍합
8oz./pkg.
\$7.99
Frozen

New Zealand "Green-lipped" Mussels

\$7.99
8oz./pkg.

SUMUP
Alaska Pollock Fillet
수협 부침용 동태살
14.1oz./pkg.
\$4.99
Frozen

동태살

\$4.99
14.1oz./pkg.

TONGTONGBAY
Dried Pollock
(Sliced)
동동베이 볶아채
8oz./pkg.
\$9.99

TONGTONGBAY
Dried Pollock
(Sliced)
동동베이 볶아채
8oz./pkg.
\$9.99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니기
8oz./pkg.
\$4.99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니기
8oz./pkg.
\$4.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Amazon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PRIME](#) [FREE](#) [DELIVERY](#)
JANUARY BIRMINGHAM STORE: 401 Midchase Tower, Birmingham, AL 35202 / TOLL: 205-321-4427 / STORE: 205-321-4427.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국방부 항의방문한 성주군민…"저 밥을 먹으면 개 · 돼지 된다"

한민구 장관 국방부 찾은 군민 2시간 동안 설득

성주군민 상경해 7시간 동안 국방부서 철회 요구

(서울=뉴스1) 김태현 기자 = 13일 발표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경북 성주 군민들과 정부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서울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경북 성주군민들을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직접 찾아 2시간 동안 해명했으나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를 마쳤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9시1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을 찾아 약 2시간 동안 성주군민을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 문제를 설명했다.

앞서 오후 4시부터 한 장관을 기다린 군민들을 설명회 시작부터 흥분한 모습이었다. 오후 6시쯤 국방부에서 군민들을 위한 저녁 250인분을 준비했지만, 200여명의 군민들은 "저 밥을 먹

으면 개 · 돼지가 된다"며 식사까지 거부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철회하라" "한민구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보좌진 10여명과 함께 등장한 한 장관을 맞았다.

군민들은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성주군 성산포대 선정 경위 △사드 기기 위험성 등을 한 장관에게 앞다투어 물었다. 무엇보다 발표 직전까지 군민은 물론 성주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도 한마디 상의 없이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북 칠곡 · 성주 · 고령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발표 전날까지 장관을 직접 찾아 몇 번이고 배치 결정에 대해 물었을 때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후보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치 장소로 결정된 성주 성산포대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평가한 것을 토대로 배치 장소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군민들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사업을 결정하는데 담당 장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성주를 방문하고 군수, 군민을 만나 대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설명회 내내 군민들은 한 장관에게 '배치 결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속상하고 억울한 군민들 심정은 잘 알았다"면서도 "앞으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 여러번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배치 결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고집하던 군민들은 이재복 대책위원장의 중재 끝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 장관의 성주 방문'을 약속 받았다. 설명회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1시10분쯤 성주군민 200여명은 귀향을 결정하고 성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앞서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이재복 사드성주배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성주군민 200여명은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한 장관이 직접 찾아와 해명 하라며 국방 컨벤션에서 머물렀고,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9시10분쯤이 돼서야 컨벤션센터를 찾아 군민들을 만났다.

solidarite4u@news1.kr



경북 성주군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상경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사드 배치 관련 설명을 들으며 항의하고 있다

한민구 "사드 전자파 제품으로 시험…재검토 · 철회 말못해"

항의상경 주민 2시간 적극 설득 불구 동의 못얻어

"주민설명 이전 보도, 죄송…성주 방문할 것"

(서울=뉴스1) 권혜정, 김태현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3일 사드(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상북도 성주군 군민들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사드의 무해성을 설명했지만 '사드 부지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발표 설명회를 찾아 약 2시간 동안 성주 주민을 상대로 "사드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주 주민들의 여러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일정 때문에 이날 늦은 오후에서야 설명회를 찾은 것에 대해 "발표 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먼저 발표가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수차례 양해를 구했다.

한 장관은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사드는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며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몸으로 시험해 여러 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그는 사드 외에도 우리 군에서 2~3개 종류의 레이더를 운용 중이라며 "

사드보다 (전자파) 출력이 더 강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무기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의 전자파는 고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드 부지보다) 밑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사드 무기 체계 자체가 지역주민에게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는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곳'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사적 요구 등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민의 지적에 "수도권에는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 요격무기가 6~7개 포대 배치돼 있다"며 "다만 후방은 상대적으로 (방어망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북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서울 공격은 패트리어트로 요격하고, 후방은 사드를 통해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이라며 "패트리어트가 작은 우산이라면, 사드는 작은 우산을 열게 정도 덮을 수 있는 큰 우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로 미국의 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MD 체계

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나름의 MD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성주 방문'을 확답했지만 사드 배치 부지 확정 재검토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이곳에서 재검토, 철회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국방부는 당초 사드 배치 지역 발표에 앞서 황인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설명단을 성주군에 보내 군민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드의 무해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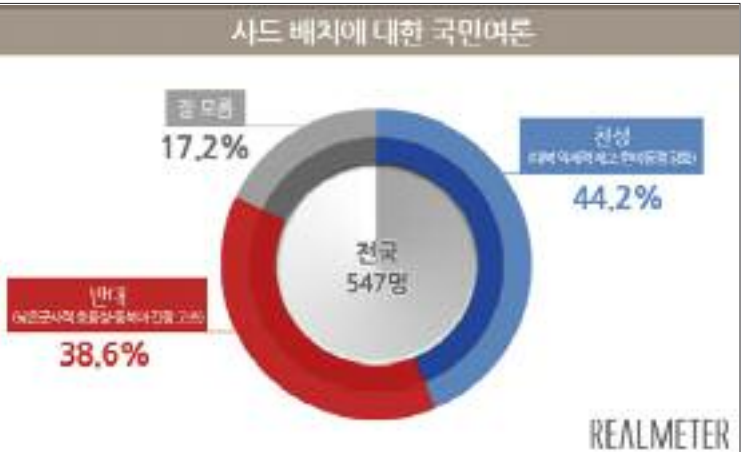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 확정 추측에 반발한 성주 주민 200여명이 이날 오후 국방부로의 항의 방문을 계획하면서 국방부의 현지 방문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이날 항의를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은 국방부의 사드 부지 발표가 끝난 오후 4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머물렀고, 한 장관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9시에 서야 설명회를 찾았다.

jung9079@news1.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경북 성주군민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 "사드 배치하려면 국회 동의 필요" 여론조사

(서울=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정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여론은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44.2%, 반대 의견은 38.6%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6% 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2%였다.

조사 응답 설문은 '대북 억제력 제고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와 '낮은 군사적 효용성과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인해 반대한다'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2월에 실시된 여론조

사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49.4%, 반대 의견이 42.3%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시 절차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은 51.1%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4.0%)보다 17.1% 포인트 더 높았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역별로도 대부분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정도에서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4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7%)와 유선전화(33%)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 포인트였다.

phd@kyunghyang.com

보스톤 **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336



1

-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morial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Ragland College	Lincoln College
New York Film Academy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5**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I.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이재명 더민주 전대 흥행 카드되나...당권 도전 가능성은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8·27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부겸·김진표·박영선·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송영길·추미애 의원의 '2강 구도'로 압축된 당대표 선거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실제로 지난 11일 프레시안 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2.7%의 지지를 받으며 추미애(10.5%), 송영길(10.3%) 의원 등과 대등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 조사는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ARS(717명)와 휴대전화 RDD 방식(301명) 병행을 통해 이뤄졌고,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 결과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결과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SNS를 통해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시장은 이번 주까지 당대표에 관한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시장측은 "재선에 성공한만큼 시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2010년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연장)를 선언했던 성남시의 부채문제를 3년만에 해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정 능력과 정치는 다른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차기 당대표의 경우 내년 대선을 이끌고 대선주자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당 대표-시장 겸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시장은 '지금은 명확하게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로 연결되는 만큼 그런 것들이 이 시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겸직 우려에 대해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둘 다 할 수 있다'는 이 시장의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이 시장의 마음은 50대 50이다"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

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보다 앞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새누리당의 경우 김용태·정병국·한선교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해 상대적으로 경선 열기가 뜨겁다.

이에 더민주 안팎에서는 이 시장의 당권 도전은 국민적 관심을 가져올 흥

행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 시장이 지난달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할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각각 농성장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했다.

playingio@news1.kr



이재명 성남시장

與 대표 경선 출마자 공약 '5인5색'...계파청산은 한목소리

계파청산 해결책서 차이...공천개혁 vs 통합리더십
대선후보 경선 공정 관리...당청 관계 회복 주장도

(서울=뉴스1) 박선미 기자 =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는 친박(親朴근혜)계 이주영, 이정현, 한선교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비박(非朴근혜)계에서는 정병국, 김용태 의원이 나섰다.

13일 기준으로 친박계에서 '서원원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경선 구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그러나 현재 출마자 대부분이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고 저마다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이들 위주로 전대가 치러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들 5명은 당내 최대 현안이 '계파청산'이 어선지 출마의 변부터 한목소리로 계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파색에 따라 해결책은 서로 달랐다. 후보들은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당청 관계 회복, 당대당 소통 강화, 민생경제 살리기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계파 청산 한목소리...해결책은 달라

계파 청산과 관련해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말 출마선언문에서 "새누리당은 특정인의 정당도, 특정 계파의 정당도 아니다"라며 "당헌당규를 편의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행이 근절돼야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대표가 된 뒤 6개월 이내 공직 후보 선출제도(공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당헌당규를 헌법 개정만큼 개정이 어렵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역시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은 "공천시스템을 혁신해 갑질 계파 정치, 패권 정치의 싹을 자르겠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이주영 의원도 "계파의식을 과감히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주영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은 '통합의 리더십'에서 찾아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선교 의원은 자신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파청산에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생이 친박이어서 계파청산을 할 수 있다. 친박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정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계파청산'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다"고 해 당 주류인 친박계의 기득권 탈피를 외쳤다.

◇대선후보 경선 공정 관리...조기 경선 추진 등

차기 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약도 잇따랐다.

김용태 의원은 '대선 후보 조기 경선'을 내세웠다. 내년 초부터 6개월 이상의 장기레이스를 만들어 '야당에 맞설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2017 민생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성장, 분배, 복지, 조세, 일자리, 교육 등 전(全) 분야에 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대선준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주영 의원은 공정한 경선 무대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계파 불문, 선수 불문, 원내외를 불문하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누구나 차별없이 대선 레이스에 나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청 관계 회복·당대당 소통 강화

당청 관계 회복을 주장한 목소리도 많았다.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수직적 당청관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국정집행과 결과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생적 협력관계' '수평적 소통관계'를 제시했다.

이정현 의원은 "권력에 줄서기하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의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선교 의원은 "이제는 당청간의 수직, 수평을 논할 시기는 지났다"고 진단하며 "당청의 동지적 관계와 당의 능동적 정책 개발로 청와대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의원은 '당청 일체론'을 제안했다. 그는 "당면한 정책 현안과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정청 일체론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는 물론 당대당 수평적 소통도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국회가 간과하는 가장 큰 실수는 '원의 위원장과의 소통'이라며 "정책위원회에 원외위원장도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당원이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견이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은 협치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3당 체제를 만들었다"며 "3당의 협치에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살리기·개헌 등도 화두로 제시

민생 경제 살리기도 후보들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다. 이정현 의원은 "서번트 리더십(섬김 리더십)으로 국민과 민생을 찾아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당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며 "민생 문제만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대기업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며 "여야간 빅딜을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개헌'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임 국회로는 세계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87년 체제를 끝내고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sm@news1.kr



새누리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당 전국 원외위원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용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파 화장실 내 위치)

탈라, 교란지 쥬,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루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컬로언트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지,
피로방, 탄력, 밝
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활력을 주는 효자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 50% 할인
간편하게 구매 가능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동영상업체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1) 조재현, 최은지 기자 = 검찰이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무상으로 동영상 제작을 제공받았다는 '홍보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 제작 업체를 1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영상제작업체 M사를 포함한,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20대 총선 당시 당과 계약한 홍보업체 M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본부장과 사무처 소속 국장 A씨, 이를 무상 제공한 M사 대표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동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의원' 시리즈 39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사용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만 당에서 비스나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또한 조 전 본부장의 홍보 비리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단장은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이, 부단장은 최교일 의원이다.

cho84@news1.kr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에 연루된 동영상 제작업체

檢,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

'포괄일죄' 형식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김정주 편의제공 · 처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직 검사장급 검사가 검찰에 체포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과업 유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아 1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대금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갚은 것으로 돼 있지만 갚은 돈 역시 김 대표가 제공한 돈이라는 것

이다.

진 검사장은 오랜 친분관계로 주식 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2년 무렵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46)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게 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그는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았고, 등록되지 않은 벤츠 차량을 몰고 다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10년인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진 검사장이 당시부터 2006년 김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을 10억여원에 다시 판 뒤 넥슨재판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차량을 제공받은 것까지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진 검사장은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수서에는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과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조만간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kukoo@news1.kr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50억원 수수' 보도한 언론사·해당기자 등 고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해당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과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 의원은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해당기자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사는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금품로비 사건을 수

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 측은 즉각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푼 정치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면반박했다.

최 의원 측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언론보도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정치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단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들여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 의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cho84@news1.kr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사유 검토 후 결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낮 12시47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뒤 서부지검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김 의원은 12일 오전 0시35분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영장 기각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11일 오후 1시56분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 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박선숙 의원은 김 의원이 차에 올라탄 직후인 12일 오전 0시37분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지' '검찰 영장청구가 무리했다는 지적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같음하겠다"고 답한 뒤 준비된 에쿠스 차량에 올라탔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

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거의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왕 부총장과 달리 박 의원은 허위계약서 작성에만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반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 수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첫 구속 의원이 나올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됐다.

ysh@news1.kr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HURAM
HUMAN RESOURCES



● 꼭 필요한 용산의 보양식이다. 짧은 시간에 필요한 용산● 다룰 수 있습니다.

新 한국기행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 외 지역도 여행가능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인기 관광지로써 최고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내 최고의 관광지 여행입니다

-



● 附合、標準、平均

- 

● 설진과 여왕은 반드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미국 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펫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OFFICE LOCATIONS



이제봉
781.654.5281



Sara You
617.899.3566



애나 정
617.780.1675



Sue Rong Tsai
617.792.8842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브래디가 빠진 패트리어츠의 2016 시즌 초반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이었던 지미 거라폴로가 드디어 선발 쿼터백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다시 한 번 번복되어 브래디의 처벌이 사라진다면 거라폴로는 또 1년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지난 13일 법원이 브래디의 항소를 거부하면서 브래디는 올해 첫 4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거라폴로는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로스터에서 NFL 경험이 있는 유일한 쿼터백이 되었다. 브래디는 디플릿게이트 징계로 4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자코비 브리셋은 올해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선택된 선수다.

패트리어츠가 10년 넘게 최고의 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래디가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래디가 없다고 해서 패트리어츠 왕조가 바로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단적인 예로 2008 시즌에 시즌 개막전에서 브래디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쉬었지만 패트리어츠는 11승 5패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올해로 프로 3년차에 접어드는 거라폴로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비록 경기 출전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 또한 패트리어츠는 공격과 수비 양쪽

에서 탄탄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브래디가 없이 치러야 하는 시즌 첫 4경기를 살펴보자.

힘든 개막전: 거라폴로가 NFL에서 선발 쿼터백으로 데뷔하는 무대는 패트리어츠가 올시즌 치를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경기 중 하나다. 아리조나 카디널스는 지난 시즌 13승 3패를 기록한 강팀이고, 올해 오프 시즌에도 주요 선수들을 영입했다. 패트리어츠의 스타 라인배커였던 채들러 존스도 올해부터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있다.

카디널스는 공격력이 막강하면서도 창의적인 블리츠를 구사해 상대편 쿼터백과 오피시브 라인을 곤란하게 만들곤 한다. 거라폴로와 패트리어츠의 오피시브 라인은 남은 오프시즌 기간 동안 카디널스의 블리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3연속 홈경기: NFL 스케줄에서 3연속으로 홈경기를 갖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운이 좋게도 2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경기가 모두 홈구장에서 펼쳐진다. 상대는 돌핀스, 텍산스, 빌스다. 작년까지의 세 팀과의 상대 전적은 23승 25패로 근소한 열세다. 세 팀 모두 패스 러시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거



올해 시즌 초반에는 팀 브래디 대신에 지미 거라폴로가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라폴로를 거칠게 몰아붙일 것이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오피시브 라인이 오프시즌 동안 얼마나 보강되어 거라폴로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거라폴로의 쇼타임: 브래디의 그늘

에 가려 출전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거라폴로가 선발 출전하는 4경기 중에서 2경기가 미국 전역에 프라임타임 생방송으로 방영된다. 1주차 경기는 일요일 저녁에 NBC를 통해, 3주차 경기는 목요일 저녁에 CBS를 통해 방영된다.

2017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거라폴로의 몸값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jsi@bostonkorea.com

'마지막 올스타전' 오티즈 "이 모든 것을 잊지 못할 것"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빅파괴' 데이비드 오티즈(41·보스턴 레드삭스)의 마지막 올스타전이 끝났다. 모두가 웃음꽃을 피운 '축제의 장'이었다.

오티즈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펙트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리그의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2타석 1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한 뒤 교체됐다.

지난 1997년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데뷔해 올해로 빅리그 20번째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오티즈는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일찌감치 공언한 상태다. 그는 올 시즌 원정경기를 떠날 때마다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

오티즈에게 마지막 올스타전인 이날 경기도 특별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호쾌한 장타는 없었지만 오티즈는 특유의 쾌활한 성격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찾은 모든 이들을 즐겁게 했다.

첫 타석에서 8구 승부 끝에 1루수 땅볼로 물러난 오티즈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7구 끝에 볼넷을 골라나갔다. 오티즈는 1루로 걸어나가면서 상대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에게 익살넘치는 표정으로 '항의'했다. 자신에게 직구만 던지겠다고 공언한 페르난데스가 변화구를 섞어 던졌기 때문이었다. '볼록 베테랑'의 귀여운 투정에 모든 이들이 즐거워했다.

오티즈는 경기 후 '엠엘비닷컴'(MLB.com)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마리아노 지베라나 데릭 지터가 그랬듯 나도 경기 전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과 이야기했다"면서 "'꼭 이겨서 월드시리즈 어드벤처를 가져가라', '올스타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3회 볼넷을 고른 뒤 페르난데스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페르난데스의 최고의 직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구부터 체인지업이 들어왔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포수 사인대로 던진 것 뿐이라고 하더라"며 웃어보였다.

한편, 에릭 호스머(캔자스시티 로열스)가 2016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최고의 별로 등극했다.

호스머는 이날 올스타전에 6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호스머의 활약에 힘입어 아메리칸리그는 내셔널리그에 4-2로 승리했다.

경기 후 호스머는 올스타전 MVP에 선정됐다. 생애 첫 수상이다. 캔자스시티 출신으로는 1989년 보 잭슨 이후 2번째 올스타전 MVP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호스머는 팀이 0-1로 끌려가던 2회말 내서



데이비드 오티즈(41·보스턴 레드삭스)

넬리그 선발 조니 쿠에토 3구째 90마일 커터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이 홈런으로 경기는 1-1 동점이 됐다.

또 3-1로 앞선 3회말 1사 2, 3루 찬스에서 호스머는 날카로운 적시타를 때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 들였다. 호스머의 안타로 아메리칸리그는 3점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지난 2011년 캔자스시티를 통해 빅리그에 데뷔한 호스머는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총 81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2 90홈런 417타

점을 기록 중이다.

한편 LA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은 사상 첫 MVP 3연패 등극에 실패했다. 2014년과 2015년 올스타전 MVP에 선정됐던 트라웃은 이날 안타 1개를 기록했지만 타점이 없었다.

트라웃은 윌리 메이스(2회), 스티브 가비(2회), 개리 카터(2회), 칼 립켄 주니어(2회) 등과 함께 올스타전 MVP 최다 수상자다. 트라웃의 올스타전 MVP 최다 선정의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starburyny@news1.kr

POS 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촌: Allston



돼지꿈: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꿈: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전해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풍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도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J-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발이 편안해야 삶이 편안" ... 발 통증 제대로 치료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연세사랑병원' ... "발과 발목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통해 통증 해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이번주 의료관광 휴람에서는 네트워크 병원인 연세사랑병원을 통해 발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족부의 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발모양 변형 '무지외반증' 치료 늦으면 관절질환 진행 : 초여름 날씨에 여성의 패션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굽 높은 하이힐이나 발이 작아 보이는 샌들은 여름철 여성의 패션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신발을 장기간 신으면 발이 신발에 부딪히거나 밀착되면서 굳은살이 생기고 발 모양이 변형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질환으로 한국 여성의 30~40%에서 발견된다. 엄지발가락 안쪽이 돌출되고 빨갛게 변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발가락에 체중의 대부분이 쏠린다. 또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고 신경이 뭉치면서 발바닥 앞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 대다수 환자들이 단순한 통증으로 넘길 때가 많다.

이모세 강남 연세사랑 병원 족부센터 과장은 "무지외반증이 지속되면 엄지발가락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보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비정상적인 보행은 발목, 무릎, 허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 다른 관절질환을 유발하므로 평소 발 모양과 통증을 세밀하게 살피고 가급적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질환 초기에는 발이 넓은 신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보존적인 치료는 일시적인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최근엔 무지외반증에 대한 수술기법인 '열쇠구멍 무지외반교정술'이 도입돼 빠른 회복과 재발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신마취가 아닌 발목 아래만을 마취하는 국소마취 후 수술하므로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적다.

또 엄지발가락뼈 자체를 돌려 제자리로 잡아줌으로써 발 모양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최소침습 정형외과수술을 시행하면 병변을 3mm만 절개해 후유증이나 재발이 적다. 치료 직후에는 특수신발을 착용하며, 나중엔 목발 없이 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모세 과장은 "열쇠구멍 무지외반교정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 위험을 낮춘 치료법"이라며 "치료 후엔 평소 자신의 발 폭에 맞는 신발을 신고, 활동이 많은 날에는 족욕이나 발바닥 마사지를 통

해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발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다? :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하는 발뒤꿈치 통증 때문에 한동안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발뒤꿈치에 찌릿하는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다양한 족부 질환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 때문이다.

족저근막염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면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붓고 찌릿한 통증을 발생시킨다. 마라톤이나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 체중증가 혹은 비만으로 인해 발바닥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한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발뒤꿈치가 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보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이모세 과장은 "격렬한 스포츠, 무리한 활

동을 지속할 경우뿐만 아니라 과체중, 비만,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어난 경우도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힘이 높아지면서 발바닥이 받는 부담이 높아져 족저근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족저근막염은 발을 딛고 움직이는 생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족저근막염은 비수술적 체외충격과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증을 느끼는 발뒤꿈치 부위에 고에너지의 충격파를 가해주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둔화시켜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충격파의 강도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와 염증에 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체외충격과 치료는 수술이나 절개가 필요없는 비수술적 치료기 때문에 입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치료 후 통증이 줄면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도 가능하다. 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는 굽이 낮은 신발보

다는 깔창을 착용하여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꾸준히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족저근막의 효과적인 치료를 도울 수 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은 다음, 수건을 이용해 한쪽 발 앞꿈치를 감싸고 수건을 몸 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천천히 힘을 풀어준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실시하면, 족저근막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

휴람-연세사랑병원 김수남 팀장은 "족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상담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연세사랑병원'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턴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고국병문 김신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턴코리아 T.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해!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의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팔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70만원 550만원	880만원 660만원	220만원 132만원	220만원 132만원	198만원 121만원	110만원 88만원	275만원 165만원	330만원 264만원

부가세(VAT) 포함가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털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칼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병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대학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예수제일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빌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머 벨렐교회	978-274-2369
엘화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화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창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가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정심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매일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송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클리닉(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초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소하실 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T. 617-504-828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웨슬리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978-995-3725

렉싱턴소재 한국식당 (한식/일식)
풀타임 웨이트레스/웨이터 구함.
T. 781-860-0171 (Kay)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8TV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5, 7, 10, 13, 22, 25, 35, 40, 44, 47, 50, 52, 54, 58, 60, 63,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인천상륙작전' 27일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오는 27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

'인천상륙작전'은 5000:1의 성공 확률,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7일 공개된 메인포스터에는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상륙작전 속 네 인물의 강렬한 이미지가 담겨있다. 맥아더 장군의 지시를 받아 첩보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로 분한 이정재는 목표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북한군 인천 방어사령관 립계진 역 이범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독기 서린 표정은 '립계진'만의 차갑고 냉혹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정재와 이범수의 강렬한 표정으로

완성된 긴장감은 극중 북한군으로 위장한 장학수와 그를 의심하는 립계진의 팽팽한 대립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또한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채선 역 진세연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한채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뿐만 아니라 더글라스 맥아더 역 리암 니슨의 위엄 있는 모습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무게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실제 맥아더 장군과 흡사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여기에 '성공확률 5000:1 인천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카피는 긴박하게 펼쳐지는 작전 수행 과정을 예고하며, 거센 폭풍우를 가르며 나아가는 군함의 이미지는 남다른 규모감의 전투신을 기대케 한다.

uu84@news1.kr



수지♥우빈, 中도 녹였다...최단기간 4천만 뷰 돌파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함부로 애틋하게'가 동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밤 10시 첫 방송된 KBS2 새 수목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극본 이경희/ 연출 박현석 차영훈) 1, 2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2.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등극, 기대작다운 저력을 증명했다.

이렇듯 '함부로 애틋하게'가 국내 월화드라마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동시 방영 중인 중국마저 들썩이게 만들어 눈길을 끈다.

특히 '함부로 애틋하게'는 12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핫 이슈' 부문에서 당당히 3위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첫 방송 이후 '핫 이슈' 조회 수가 5억 뷰에서 17.6억 뷰로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중국에서의 수치 계산은 방송 당일 하루 클릭 횟수가 아닌 매일매일의 횟수를 총합한 누적 뷰수를 평가하고 있는 상태다. 유쿠 방송 서비스 사상 1, 2회 방송 만에 40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함부로 애틋하게'의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함부로 애틋하게'는 중국판 포털 사이트 중 1위인 바이두닷컴에서 12일 검색어 횟수 160만 번의 조회수를 보이는 등 폭풍 호응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함부로 애틋하게'가 앞으로 남은 18회 동안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ahee126@news1.kr

손석희 만난 매트 데이먼 '뇌섹남'다운 진중한 입담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할리우드 배우 매트 데이먼이 '국민 앵커' 손석희를 만났다. '뇌섹남'다운 진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답변이 빛을 발했다.

매트 데이먼은 14일 저녁 7시55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솔직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날 매트 데이먼은 배탈이 난 사실을 고백하며 "비행기에서 먹은 음식 때문인 거 같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며 웃었다. 사실 매트 데이먼은 판문점에 들릴 예정이었다. 그는 "가보고 싶었다. 오늘 하루 비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이 있었다"며 "관심이 가는 곳이다. 어느 나라를 가든 역사적 장소는 되도록이면 찾아가보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매트 데이먼은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본의 차이에 대해 "처음 이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제임스 본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서가 다른 영화다. 여성혐오적이고 마티니를 마시면서 사람을 죽이고 농담을 내뱉는 인물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이슨 본은) 회의적이고 말할 수 없이 고뇌에 차 있고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싸워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 시리즈 명장면으로 좁은 공간 격투신을 꼽자 "할 수 있는 건 직접 다 한다. 명장면 중엔 어쩔 수 없이 전문 스텐트맨을 통해 만든 부분도 있다"며 "격투장면은 직접 하려고 한다. 춤추는 장면과도 같다. 상대하는 두 연기가 반드시 각자 위치를 지켜야 한다. 실제 싸움과는 다르다. 노련한 상대를 만나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트 데이먼은 "일을 시작할 때 감독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큰 책임을 지고 영화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사람이다.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작품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 역시 누가 감독인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배역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고 훌륭한 감

독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언젠가 감독이 되고 싶으며 "감독이야말로 영화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그만큼의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트 데이먼의 첫 작품은 소소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역시 "아주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라"고 조언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그는 이미지를 위해 작품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트 데이먼은 "다양성을 키우고 싶었다. 나는 영화를 사랑하고 다양한 형태의 영화를 하길 원한다"며 "명청한 코믹도 하고 역사를 다룬 서사영화도 했다. 단지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고 고민하진 않는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매트 데이먼은 지난 6일 영화 '제이슨 본' 홍보차 내한해 레드카펫과 기자회견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제이슨 본'은 완벽한 무기였던 제이슨 본이 모든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가 자신의 기억 외에 과거를 둘러싼 또 다른 음모와 마주치게 된 뒤 다시 돌아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본 얼티메이텀' 이후 9년 만에 개봉하는 '본' 시리즈라 기대를 모은다. 오는 27일 개봉.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7월 4일 ~ 2016년 7월 10일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8.1%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4.1%
3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19.0%
4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8.7%
5	KBS1	KBS9시뉴스	17.9%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7.3%
7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5.0%
8	KBS1	전국노래자랑	14.0%
9	KBS2	해피선데이	13.1%
10	SBS	주말특별기획(미녀공심이)	13.0%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4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5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6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7	SBS	주말특별기획(미녀공심이)
8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9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0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Why So Lonely	원더걸스
02	Forever (Prod. By GRAY)	BewhY
03	Shut Up (Feat. 유희열)	언니쓰
04	맘 편히 (Comfortable)	사이먼 도미닉
05	쿵	Zion.T
06	I Like That	씨스타
07	니가 알던 내가 아냐 (Prod. By GRAY)	사이먼 도미닉
08	CHEER UP	TWICE
09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10	호랑나비 (Feat. Gill, 리듬파워)	보이비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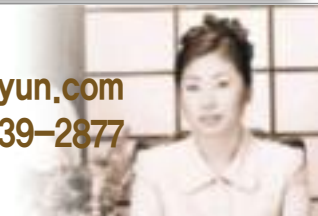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5					4		8
1						9	6	
				6	8			7
	4		5				1	
	9	2		8		3	4	
	1				7		9	
8			1	5				
	6	1						4
5		9					7	

7월 17일 - 7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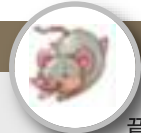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처음과 끝이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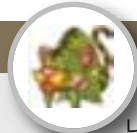
●운수: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금전: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줄 때에 신의가 더욱 깊어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소띠 |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수:할 일은 너무 많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처리를 하세요. ●금전: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유통이 되어야 돈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애정: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구애에 넘어가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범띠 |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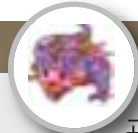
●운수: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능률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주입니다. ●금전: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애정: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때입니다.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1,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토끼띠 |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운수: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급하게 뛰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재충전을 해나가면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금전:돈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갈 길이 따로 있는 것, 다시 만날 인연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편하게 생각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1일 길일. 17, 23일 주의.

용띠 |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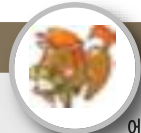
●운수: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기회라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머지않아 즐거운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작은 것에 묶기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못마땅한 점을 발견하고 후회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니 갈등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7, 19일 길일. 18, 22일 주의.

뱀띠 | 큰 성과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운수:사업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됩니다. 큰 성과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주입니다. ●금전:일석이조의 운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애정:그동안 우정이라고 생각해왔던 감정이 급속히 연애감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말띠 |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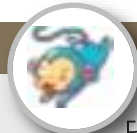
●운수:박력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을 재설정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평소보다는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주입니다. 직장인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 줄 것입니다. ●애정:이제는 정말 뭐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

양띠 | 주위 상황에 잘 대처해야



●운수:지나치게 자기주장만을 고집해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화합하지 못 하는 것이 결점이 되어서 일이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금전:어디를 가든지 정신을 차리고 주위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성격으로 인해서 아내나 남편에게 핀잔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타고난 천성이라 어쩔 수 없군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3일 길일. 17, 18일 주의.

원숭이띠 |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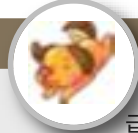
●운수: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뿐이고 움직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금전: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애정:마음속에는 사랑의 불길인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은 사랑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닭띠 | 신중을 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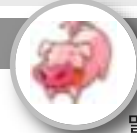
●운수: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더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금전:백보전진을 위해 일부후퇴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애정: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활을 자기 위주로 하기가 쉬운 주이니 주의하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개띠 |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운수:아무리 좋은 칼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금전: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탐 흘려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애정:이성문제로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운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주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돼지띠 |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운수: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늘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금전:금전적으로 어려움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 ●애정: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빅뱅 10주년 콘서트는 규모도 남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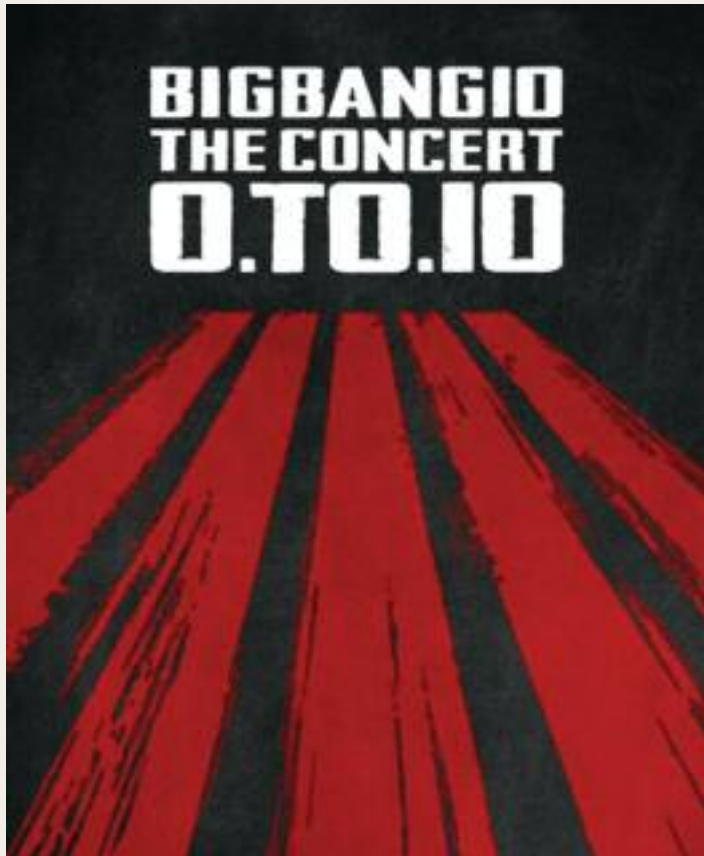
1회 6만 명 동원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그룹 빅뱅이 국내 단독 콘서트 사상 1회 공연 최다 객석인 6만 석 공연을 개최한다.

빅뱅은 오는 8월 20일 단 하루만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BIGBANG10 THE CONCERT-0.TO.10'을 개최한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팬들과 기념비적인 공연을 함께 즐기기 위해 최대 규모로 객석을 설계하고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빅뱅은 역대급 무대 연출, 퍼포먼스, 이벤트 등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또 멤버 모두 이번 콘서트를 위해 직접 기획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2006년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빅뱅이기에 이번 콘서트를 통해 초창기부터 최근 무대까지 한자리에서 빅뱅의 음악 역사를 되새겨보는 기념



비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멤버 전원 솔로 무대와 새로운 편곡들을 통해 가장 뜨거운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 빅뱅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어 이번 10주년 콘서트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

인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빅뱅은 이번 콘서트 외에도 영화, 전시회 등 데뷔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팬들과 만난다.

nahee126@news1.kr

'거침없는 비상' 이수근 제 2의 전성기 맞이하기까지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방송인 이수근이 복귀 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맞춤 에너지를 통해 기존에 보여줬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탄탄하게 구축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수근은 매주 토요일 밤 11시 방송되는 JTBC '아는 형님'에서 최근 '콩트의 신'으로 활약 중이다. 그는 특히 상황극에 강한 개그맨이다. '아는 형님'의 새로운 포맷은 그런 이수근의 장점을 십분 살린다.

이수근이 '아는 형님'에서 재치있는 상황극 설정으로 웃음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 KBS2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에서는 소통형 MC로 활약 중이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거침없이 다가가고 허심탄회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푸근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tvN '신서유기'를 통해 오랜만에 복귀 후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던 이수근은 최근 탄력을 받으며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KBS2 '우리동네 예체능' 배드민턴편 게스트로 등장한 그는 다시 한 번 유



쾌한 웃음을 전파했다.

이수근은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Mnet '히트 더 스테이지'에서 전현무와 공동 MC를 맡는다. 또 SBS 새 파일럿 프로그램 '신의 직장'까지 출연해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을 넘나들며 활약을 예고한다.

이수근은 본래 잠재적인 재능이 많은 방송인이었던 만큼 이제 점차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MC와 게스트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방송인이 많지 않은 만큼 이수근이 물오른 입담을 꽃피울수록 방송가의 환대를 받는 모양새다. 제대로 몸을 푼 이수근은 화려하게 비상 중이다.

reddgreen35@news1.kr

'해투3' 헨리·존박·강남, 강호동 합동 디스? "발음 어려워"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가수 헨리, 존박, 강남이 방송인 강호동을 향해 합동 디스를 펼친다.

세 사람은 최근 진행된 KBS2 '해피투게더3' 녹화에서 강호동의 이름이 나오자 한마음 한뜻이 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헨리는 "강호동 형과 함께 예능을 할 때 힘들다. 중국 예능에서 형의 통역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60프로는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못 알아 들어서 가끔 지어내서 통역하기도 한다"고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강남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강호동 형 말만 못 알아듣겠다. 형은 도대체 서울에서 몇 년 차냐"며 헨리의 고충에 동의했고 존박 역시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고 고개를 가로저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nahee126@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fresh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6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테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BOMAB • GGT • LMB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7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아이가 다섯 |
| 2 | KBS |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 3 | KBS | 별난가족 |
| 4 | MBC | 좋은사람 |
| 5 | KBS | 여자의 비밀 |
| 6 | MBC | 다시시작해 |
| 7 | SBS | 미녀공심이 |
| 8 | KBS | 당신은 선물 |
| 9 | KBS | 가화만사성 |
| 10 | SBS | 닥터스 |

티보플레이 7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함부로 애틋하게 |
| 2 | CJ | 굿와이프 |

티보플레이 7월 1째주 최신 영화

'싸우자 귀신아' 옥택연♥김소현, 달콤 + 오싹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옥택연과 김소현이 찰떡 케미를 자랑하며 극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2회 만에 케미를 자랑하며 심쿵 장면을 여러 차례 낚으면서 로코커플로 거듭났다.

김현지(김소현 분)는 지난 12일 밤 11시 방송된 tvN '싸우자 귀신아'(극본 이대일/ 연출 박준화) 2회에서 박봉팔(옥택연 분)이 잃었던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현지는 박봉팔과 우연한 사고로 입을 맞춘 뒤 죽기 직전의 기억이 잠시 돌아왔고, 그와 입을 계속 맞추며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를 쫓아다녔다.

김현지는 박봉팔이 다니는 대학교까지 따라다니며 그를 귀찮게 했다. 또 박봉팔이 호감을 보인 임서연(백서이 분)과 수업시간에 한 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박봉팔은 계속 자신을 껌잡지처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김현지를 때어 내려 했으나 퇴마를 하는 중요한 순간에 그의 도움을 받았다. 김현지는 귀신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했고, 이 덕분에 다시 한번 두 사람은 콤플레이를 펼치며 퇴마를 할 수 있었다.

옥택연과 김소현은 인간과 귀신이라는 비현실적인 관계지만 티격태격하거나 서로를 신경쓰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연인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과정은 키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층 로맨스에 불을 지폈고, 두 사람의 케미 또한 한몫을 했다. 특히 김소현은 애교부터 액션까지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며 이전 작품에서 보여줬던 아역의 모습이 아닌 성숙한 매력을 자신 안에서 끄집어냈다. 덕분에 유쾌하면서도 달콤한 옥택연과의 로맨스에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바벨250' 외국인 불통 예능이 통했다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tvN 새 예능 '바벨250' (바벨이오공)이 베일을 벗었다. '바벨250'은 첫 방송 다음날 오전 내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11일 밤 첫 방송된 '바벨250'에서는 한국, 브라질, 프랑스,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태국 등 7개국 청년들이 남해 다랭이 마을에서 처음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어 사용은 금지였다. 출연진은 각자 모국어를 사용해 국적, 이름을 밝힌 후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바벨250'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소통도 불가능할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글로벌 공동어 제작 프로젝트로 매주 월요일 밤 9시40분에 방송한다.

hjk0706@news1.kr



TBO
PLAY

보스톤군과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사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nand, y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e 500
Boston, MA 02116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Plant 플랜트 + 맥심원에 위치, 부동산 교차 \$1,39M **SOLD**
2. Full Plant 세막스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막스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막스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도봉오브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도봉오브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8. 렌트 : 701 Harvar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alledley **SOLD**
10. Condo : 20 Worcester st, unit 1, Win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33-35 Baker St., Belmont **SOLD**
12. 비빌 시골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3,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14. Condo : 47 Haver ave Unit 4-3 Cambridge **SOLD**

NEW LISTINGS



콘도 세일

47 Gordon St, Unit 1 Allston
2 Bed 1 Full bath, 좋은 위치,
2017년 레인지퍼 피스 애플.

UNDER AGREEMENT



렌트

12-18 Ellery St, Unit 600 Cambridge
2 Bed 2 full bath, 하버드 가.역서 5분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car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8월1일 입주 가능.

월 \$3,000

NEW LISTINGS



Single Family
6 Seven Way Road
4Bed 2.5Bath 3,000 sq. ft. 1.2 Acres
Out-door lot,
Asking **\$1,159,9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3회

캔슬된 AAA 멤버십 덕분에 삶을 또 배우고...

한 달 전쯤의 일이다. 열댓 명이 모이는 여자들의 모임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주차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시는가 물으니 자동차에 차키를 놔두고 내려 문이 잠겼다는 것이다. 언니의 남편에게 전화를 넣어 AAA를 불러달라 했더니 만료가 되어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내가 도착하니 AAA 멤버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AAA 카드를 꺼내어 전화를 넣었다. 웬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멤버십 카드도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고 돈을 지불하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언니네 것과는 우리 것 모두가 만료되었다니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집에 계신 남편에게 전화를 넣어 자동차 키를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락 되고 무엇인가 도움도 되지 못한 내게 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해 주신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을까. 아뵘싸!! 이른 시간 골프 약속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 몇 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웬일?? 얼마 전의 주차장에서의 해프

닝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닌가. 골프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씩 하자는 것을 마다하고 빨리 집에 오려고 준비하다가 그만. 아뵘싸!! 철적 자동차 안에 키를 놔두고.

우리 집 AAA 멤버십은 만료된 것이 확실하니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 집과 골프 코스와의 거리를 생각하면 남편에게 자동차 키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한소리 할 것이 뻔하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번 자동차 키를 놓고 동동거리던 언니가 곁에서 웃음을 보내주신다. 엇그제 AAA plus 멤버십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말이다. 그래서 커피도 마다하고 집으로 곧장 온다던 말은 간데없고 덕분에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자동차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참으로 다급할 때 누군가의 손길로 그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치로 보아 따지자면 누가 번거롭게 다른 사람의 일에 이려고저러고 참견하고 싶을까 말이다. 그저 한 귀로 듣고 모른척하고 한 귀로 흘려보낸들 그 누가 나를 뭐라 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네 삶이 어

찌 그리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던가.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던가 말이다. 이번 일로 세상 삶의 깊이와 높이를 그리고 삶의 너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귀찮아 지나치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기를 기도한다.

세상 나이가 더 늘면 늘어나는 만큼 생각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은 더욱 너그러워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삶 속에서 가끔 경험하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것이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꽤 걸렸다. 이제 나 역시도 그쯤의 세상 나이에 오르고부터 시작이 되었다. 무엇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하례하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한다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낯설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아차, 싶은 마음에 나를 돌아보니 모두가 감사라고 고백하고 말았다.

그렇다, 누가 어떻게 하든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내가 할 수 있는만큼만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신경

쓰며 시간 빼앗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어차피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밖에 줄 수 없음인 까닭이다. 괜스레 줄 수 없는 것에 연연하여 안타까워하거나 속 끓이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에서 줄 수 있다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편안한 마음이 될 것이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의 특별함이란 바로 엇그제 겪은 일들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어떤 일이나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깊이를 높이를 너비를 알게 되기도 한다. 관계란 무엇보다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 않을 그 거리 만큼에서 서로 마주하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만남(관계)이 또 있을까 말이다. 이번 주차장에서 있었던 두 번의 해프닝을 통해서 잠시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만료된 AAA 멤버십 덕분에 삶을 또 배우고 익히며 감사한 오늘을 맞는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형님도 태몽.
귀한 아이라는데,
입안이 시다.
2016.7

한담객설閑談客說: 일촌一寸 사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는 정확히 가려내어 물어 죽인다 했다. 그러니 배가 다른 새끼를 다른 어미에게 유모역할을 맡기는게 쉽지 않은 거다. 현대 알고 보니 일은 쉬운듯 했다. 어미는 제 새끼에게는 자신의 오줌을 발라 놓는다. 오줌냄새로 제 새끼와 남의 새끼를 구별하는 거다. 그러니 남의 새끼를 슬쩍 밀어 넣을 적에, 어미의 코끝에 어미의 제 오줌을 발라준다. 어미가 아무리 예민한 코를 가졌다 해도, 모든 새끼들의 냄새는 같다. 바로 코 끝에서 같은 오줌냄새가 나니 말이다. 형님의 설명에 어린 나도 신통해 했다. 토끼도 일촌 어미와 새끼 사이에 구별이 결코 쉽지는 않다.

문정희 시인이다. 그의 아들에게 시이다.

아들아

너와 나 사이에는
신이 한 분 살고 계시나보다
.....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훌쩍 큰 키의 젊은 사람아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신이 한 분 살고 계시서
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
(문정희, 아들에게)

내 어머니를 오랜만에 뵈웠을 적이다. 마르고 늙은 눈가에는 물기가 서렸고, 붉어졌다. 대신 내 목이 잠겨왔으니, 애써 고개를 돌렸다. 내 아들도 나를 오랜만에 만나면 목이 땀 것인가. 반가운 눈물은 7월의 청포도처럼 입안에서 시다.

손수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썰렁개그 풀어낸다. 요새 이야기하는 부장님 개그이다. 동네 처녀가 남자친구를 만났다. 지나던 동네 어른이 그걸 봤다. 당황한 처녀가 하는 말. 실은 내 오촌오촌 오라버니. 궁한 나머지 변명으로 내 던진 한마디였는데, 그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네촌수는 쿡가루 촌수인가? 아니면 애교넘치는 촌수인가? 그건 모르겠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 19: 26)

아니 벌써 7월 중순이다. 청포도가 익어 가는 계절이다. 포도는 적당히 건조해야 달것 인데, 너무 말게 살속에 씨앗도 보인다. 요새 보스톤의 7월은 투명하다.

한국 전통에 촌수寸數가 있다. 결혼하면 부부 간에는 0촌이란다. 부모와 자식기간엔 1촌이다. 형제간에는 2촌인바. 삼촌은 1+2 가 되니 3촌 인게다. 매우 수학적이고, 앞뒤가 맞는다. 부부는 피가 다를 것이니, 부모와 자식이 가장 가깝다. 하긴 우리 민족은 한두다리 건너면 모두 안다. 서너다리 건너면 모두 친척일지도 모른다. 원체 좁아야 말이지. 그러니 사돈에 팔촌이란 말도 있다. 실은 팔촌이라해야 그닥 먼것도 아니다. 사촌에 사촌일테니 말이다. 어디선가 읽었다. 전세계 인구의 1할이 몽고족의 피가 흐른 다던가. 칭기즈 칸 시절에 위낙 피를 넓혔으니 말이다. 당연히 우리 모습은 몽고족과는 구별

이 쉽지는 않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의 진위공방이 한창이다. 감정가들은 작품이 진품이라 했다. 하지만 화백은 그 그림은 위조작이라 했다. 화백이 던진 말이 의미심장하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미가 몰라보겠는가?’ 한편, 이우창 화백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반대인 경우다. 작가는 진품이라 했는데, 전문가들은 모조품이라 했다. 도무지 어느 말이 맞는지. 사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신의 새끼인지 구별이 쉽지 않을 적도 있을 거다. 일촌간에도 피와 살과 뼈를 주어도 알아 볼수 없을적도 있는 모양이다.

아주 오래전이다. 내 형님은 집에서 토끼를 키웠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꽤 많이 키웠는데, 갓 태어난 새끼를 키우는게 재미있다. 형님이 어린 내게 말해줬다. 배가 다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방법이다. 제 새끼가 아니면 어미토끼



보스턴 건스테드 카이로프랙틱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Dr. 건스테드의 정통 카이로프랙틱 철학을 이어 받은 보스턴 건스테드가 개원을 기념하여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원기념 스페셜

★★★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 7월18일- 8월31일



진료과목

- 척추계통
급성 목 / 허리 염좌 및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통증
- 신경/순환 계통
손발 저림, 방사통, 만성 통증,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 직장 / 운동 관련 사고
- 학생 / 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Tel. 617.277.0648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info@bostongonstead.com
Web: www.bostongonstead.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6. 기숙학교를 통한 인디언 동화정책 (4)

루터 스탠딩 베어(Luther Standing Bear) (계속)

이 소식은 버밍햄 신문들이 주요 뉴스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빌 코디의 제안에 따라 쇼 중에 산모와 아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에게 돈을 주어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영국 공연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 1903년 새롭게 계약을 맺고 미국 내 공연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리노이에서 4월 7일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세 명의 젊은 인디언이 사망하고 루터도 크게 다쳤다. 그 뒤로 루터 가족은 빌 코디 쇼에 출연하지 못하였다.

파인릿지로 돌아온 루터는 1905년 7월 4일 오글라라 라코타의 추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인릿지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던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아이오와의 수우시티(Sioux City)로 이사했다. 1912년에는 다시 아이오와에서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옮겨갔다. 거기서 영화배우로 활동하면서 헬렌 헌트 잭슨 여사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라모나(Ramona, 1916년 작) 등 십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 인디언 배우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다. 영화 속에서 인디언들의 모습이 잘 못 그려지는 일이 없도록 영화 제작자들에게 촉구하기도 하고 인디언의 배역에는 반드시 인디언 배우를 캐스팅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인디언 출신 스

포츠 영웅인 짐 소프(Jim Thorpe)가 중심이 되어서 인디언배우협회를 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8년 그의 첫 저서 ‘나의 수우족(My People the Soix)’ 이 발행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인디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던 백인들에게 인디언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고 강연을 여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 그 무렵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 작성한 ‘메리암 보고서(Meriam Report)’ 도 발간되어 강제적인 인디언 동화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루터는 1934년까지 네권의 책을 더 펴냈다. 루터는 저서와 언론기고 그리고 강연을 통하여 인디언들도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디언의 자치권의 확보는 물론이며 전통 신앙과 축제도 존중되어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스법(Dawes Act)에 의한 토지할당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13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는 동생 Henry Standing Bear와 함께 크레이지 호스의 석상 건립을 추진하였다.

짐 소프(Jim Thorpe)

칼라일 학교는 수많은 인디언 인재들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한 걸출한 스포츠 스타가 있었다. 알곤퀴언 어족(Algonquian language family, Algic이라고도 함)에 속하는 소크(Sauk, Sac and Fox)부족 출신의 소프(Jim Thorpe)라는 만능선수가 그 사람이다. 그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5종경기와 10종경기 두 부문에서 금메달을



〈짐 소프(Jim Thorpe)〉

땀으며 ABC스포츠에 의하여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선정되었다.

소프의 부모는 둘 다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다. 그는 쌍둥이 형제인 찰리(Charlie)와 함께 오글라호마의 소크족 거주지역 학교에 입학했다. 소프가 그 학교에서 도망쳐 나오기를 반복하자 소프의 부모는 그를 멀리 캔사스의 기숙학교인 하스켈(Haskel Institute)로 보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소프는 실의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와 몇 차례 연쟁 끝에 집을 떠나 말 목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904년 그의 나이 16살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상의한 후 칼라일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칼라일에는 워너(Glen Scobey Warner)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가 있었는데 소프의 재능을 알아본 워너가 소프를 잘 지도하였다. 그해 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낙담한 소프는 칼라일을 자퇴하고 농장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칼라일로 다시 돌아왔다. 학교로 돌아온 1907년부터 높이뛰기를 포함하여 모든 필드와 트랙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육상종목 외에도 미식축구, 야구, 라크로스(lacrosse) 등 구기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심지어 볼룸댄스(ballroom dancing)에서도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8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개국開國5년 모랑공이 비사벌比斯伐을 여행하다가 병을 얻어 길에서 죽었다. 낭도들이 이화랑공을 받들길 원했다. 그 때 이화랑공은 태후의 총애로 늘 궁중에 머물렀기에 사양하고자 했다. 낭도들이 말하기를 “위공魏公의 아들이 앉지 않으면 누가 앉겠습니까?” 했다. 태후가 이에 명하여 오르게 하여 4세 풍월주로 삼고 군현郡縣을 순행하도록 했다. 그 때 태후가 바야흐로 만호낭주萬呼娘主를 임선했다. 그러므로 그 출산을 기다려 떠났다.]

개국開國5년은 서기555년이다. 540년에 즉위한 진흥왕은 처음에는 법흥왕23년(536년)부터 사용한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썼다. 그러다가 즉위12년인 551년부터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런데 여기 ‘화랑세기’의 기록을 통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르게 기록된 진흥왕의 즉위년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진흥왕이 540년에 즉위했다고 적고 있는데, 즉위 당시의 나이는 삼국사기가 7세, 삼국유사는 15세로 기록하고 있다. 진흥왕이 7세에 즉위했다면 이 당시 그의 나이가 22세이고, 15세에 즉위했다면 30세이다. 그리고 생물년이 미상인 어머니 지

소태후가 만일 15세에 장남인 진흥왕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만호낭주를 낳을 당시 37세이거나 45세이다. 그리고 정사에는 만호가 임종갈 문왕의 딸로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소태후는 첫남편 임종(자신의 삼촌)과의 사이에서 장남인 진흥왕을 비롯하여 차남인 김숙흥종과 만호낭주를 낳은 후 임종이 죽었다. 그리고 다음 남편인 태종 이사부와와의 사이에서 삼자 세종전군과 숙명공주 그리고 이차돈을 낳았다. 그리고 다음 남편인 박영실로부터 두 딸 황화공주와 송화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남편인 구진과의 사이에서 딸 보명공주를 낳았다. 정사에서는 진흥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식들의 생물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때 정사의 기록대로 만호낭주가 임종의 딸이라면 지소태후는 환갑이 지나면서도 아이들을 낳았다는 격이 된다. 그리고 생물년이 미상인 임종은 아마도 진흥왕과 숙흥종을 낳고 십대나 이십대 초반에 절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든 사서들을 종합해 보면 진흥왕의 즉위 당시는 7세일 가능성이 확실하고, 지소태후는 아마도 첫남편 임종이 죽은 후로는 많은 남편들과 이화랑을 비롯한 많은 침신/연인들과 동시에 섹사를 했음이 입증된다. 그리고 만호낭주는 임종의 딸이 아닌 이화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더 많다. 특히 이화랑과 눈이 맞은

숙명공주(지소태후와 태종 이사부의 딸)와 박영실과 낳은 딸들인 황화와 송화가 당시에 ‘남자’를 알 나이가 되어 있었으니까..., 당시는 성이 대단히 개방되어 있었지만 특히 지소태후는 진성여왕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게 수 많은 남자들을 침실로 불러들렸다(시대가 바뀌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왕족의 한 여인이176) 자유분방하게 못 사내들과 어울린 결과 모든 남자들은 무사했지만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명으로 혼자 사사당했다. 그리고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176) 박어우동朴於宇同, 조선 성종 때 조정의 고위관료들이 연루된 성 스캔들 사건의 주인공으로 더 잘 알려진 여인, 그녀는 양반가의 출신으로 미색과 기예技藝를 겸비한 출중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왕족인 태강수 이동과 결혼했다. 이동李壽은 태종의 서증손자이다(태종의 아들 효령대군의 5남 영천군의 서자). 그리고 혜인이라는 외명부의 품계를 받고 딸 이번좌를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왕족의 후손을 못잇는다고 뱃대를 받다가 버려졌다. 버려진 설은 두 가지 인데 남편이 연경비라는 기생에게 빠져 어우동의 허물을 잡아서 쫓아내었다는 설과 또 하나는 집에 은그릇을 만들려고 찾아온 은장이와 간통을 했기에 쫓아냈다

는 설이다(그러나 이 간통설은 조사 결과 무죄로 판결나고 이혼은 무효화 되었다. 그리고 이 동은 부인을 함부로 버리고 기생에 빠진 죄로 삭탈관직 당했고 재결합하라는 성종의 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어우동을 결국 쫓아냈다). 버림을 받은 그녀는 친정에 왔지만 아버지 박윤창은 들이지 않았다. 그 때부터 오종년을 비롯하여 왕족인 방산수 이난(세종의 서손자, 계양군의 서자, 어우동의 이름을 문신하였다)과 수산수 이기(남편의 8촌, 정종의 9남 석보군의 서손자) 그리고 병조판서 어유소와 노공필, 김세적, 김침, 김휘, 정숙지 등의 고관(고관들은 혐의 부인)들로 부터 박강창(노비 매매상, 어우동이 제일 좋아했던 남자), 학유 흥찬, 생원 이승언, 내금위 구전, 감의향, 이근지, 지거비(밀성군의 노비) 등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하였다. 이혼 후 기생으로 가무에만 능한 게 아니라 시문과 서예에도 일가견이 있었지만 음부의 작품이라고 모두 소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성종실록, 용재총화, 대동야승 등에 전한다. 유감동, 황진이, 이구지, 허난설헌, 대방군부인 송씨등과 함께 부도를 어긴 여인으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매도당하고 지탄 받았다. 또한 장희빈, 장녹수, 문정왕후 등과 함께 조선의 악녀로 비판받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TV MBC SBS tvN Mnet Olive OCN STORY LINE DaStyle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健 (건)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健康)이 됨이니라”

“My son, pay attention to what I say : listen closely to my words,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keep them within your heart :
for they are life to those who find them and health to a man's whole body.” - 잠언 4:20-22.

한국의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이 내다보인다.

한·미(韓美) 두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물고울 영향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로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계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한국대선이 겪어야 할 양상이 복잡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세계경찰’의 국제적 위치를 접고 미국의 내실(內實)에 치중하는 ‘고립주의의 길’을 갈 듯.

이에따라 세계경제 질서도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양상이 내다보일 것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질서가 요동칠 것이다.

미국과 정치·경제·군사·외교관계가 깊이 연계된 한국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은 불보듯 확연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도 예민할 것이 뻔하다.

한국은 중국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등을 충분히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한국과 파들의 반미(反美)공세등으로 한·미관계는 옛날과 다른 밀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경제 선봉으로 나서면 좋은 일이지만, 한국의 입장을 배려, 한·미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줄 수도 있다는 차선의 전략을 가는 듯.

우리의 정치, 외교, 안보라인도 미국의 이 갈

은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끌려갈 수 밖에.

EU는 영국이 빠진 유럽대륙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된다.

한국이 아세아·태평양 세력으로 남느냐, 대륙세력에 편입 될 것이냐의 선택은 한국의 장래를 가름할 국가적, 민족적 차원이어서다.

우리가 미국편에 서느냐 중국편에 서느냐의 편 가르기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EU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체의 26.1%로 미국의 2배에 달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에 “고고도 미사일(THAAD)”을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이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이 비관세장벽 대 한국 무역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경제 타격을 피할 길이 없어서다.

정치권과 정부소식통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이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THAAD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THAAD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중국·러시아등 주변국과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THAAD배치를 비판했다.

더민주주는 THAAD의 군사적 효율성, 유해전자파의 안전성, 대중외교문제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자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교역의존도를 무기로 무역형의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걱정한다.

공식적인 무역보복조치는 아니더라도 각종 비과세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1,371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5,272억 달러의 28.1%를 차지했다.

한국 총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수출한 셈이다.

제2수출국인 미국(699억 달러) 13.2%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달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었다.

앞서 중국이 정치외교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도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외교부의 THAAD배치 발표 후 곧바로 홈페이지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다음, 김장수 주중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었다.

健(건):은 ① ‘사람 인(人)’자와 ② ‘세울 건(建)’자로 합성돼서 : 人子(인자)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의 건강 곧 나의 종합적인 인간상(人間像)이 형성돼 간다는 뜻이다 .

B.C. 950년-700년경 솔로몬(Solomon)왕의 재위(B.C 971-931)기간 중에 기록됐으므로 대부분 솔로몬 왕의 잠언들이며 아굴(Agur), 르무엘(Lemuel)왕을 포함 기타 지혜로운 사람들의잠언들이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들의 묵시

적인 사건에 의지하거나 제사장들처럼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자유롭게 관찰했었다.

많은 인간 경험과 자연계의 지식을 이용해서 인생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했었다.

그들의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라기보다 여호와와의 지혜가 세계지배의 원리라는 바탕에 뿌리하여 지혜로운 삶이 경건한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것. 반대로 어리석은 삶은 곧 불의(不義)한 삶이란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

健자는 인간의 생활 곧 죄악의 연속에서 헤어 나와 ‘내 몸에 인자(人子)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영생(永生)으로 변화시키는 사랑(愛)만이 우리 죽을 몸을 주 예수님의 부활(復活:Resurrection)에 동참 할 수 있다’는 것.

‘健’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主)가 되려 하심이니라 :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For this very reason, Christ died and returned to life so that He might be the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이보다 더 확실한 健의 증거와 설명은 없다 . 이 健을 향한 인생이 확실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대답하신다. 어김없이…….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사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On Demand, TBO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외과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통시점사 시행
- ◎ 1:1 에스코트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와 사술 및 편견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신속한 외과진료 접근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와의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12월 31일(목)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50세미만] ————— 55만원 → 48만6천원 신체자극, 체지방분석, 혈액검사, 안저, 시각, 청각, 폐기능, 흉부촬영(흉선, 속선, 심전도, 혈액형, 알코올,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혈액암, 암-갑상선암, 갑상선종괴, 고지혈증, 요산, 골밀도검사, 골밀도지체검사,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폐암, 자궁암, 소변, 대변검사, 기능성, 복부초음파, 유선자극, 치과진찰(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양), 사생촬영기	[50세미만] ————— 58만원 → 53만1천원 신체자극, 체지방분석, 혈액검사, 안저, 시각, 청각, 폐기능, 흉부촬영(흉선, 속선, 심전도, 혈액형, 알코올,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혈액암, 암-갑상선암, 갑상선종괴, 고지혈증, 요산, 골밀도검사, 골밀도지체검사,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폐암, 자궁암, 소변, 대변검사, 기능성, 복부초음파, 유선자극, 치과진찰(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양), 사생촬영기, 핵심지공관부검정기, 유방촬영, 대장초음파
[50세이상] ————— 67만원 → 60만3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신체검사 1 (계산상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50세이상] ————— 69만원 → 62만1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골밀도, 자궁초음파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신체자극 정밀검진	신체자극 정밀검진
1. 소화기검진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 100만원 → 90만원 2. 심장검진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00만원 → 90만원 3. 뇌검진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0만원 → 135만원	1. 소화기검진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 110만원 → 99만원 2. 심장검진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10만원 → 99만원 3. 뇌검진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4만원 → 139만원
방사선검진	방사선검진
1. 알코올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VT-D ————— 200만원 → 180만원 2. 고령자검진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심장정밀촬영 ————— 300만원 → 270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술, VT-D, 복부6굴판CT,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자선촬영기, 관상동맥CT	1. 알코올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아검사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VT-D ————— 220만원 → 199만원 2. 고령자검진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심장정밀촬영 ————— 320만원 → 289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아검사 DNA,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자선촬영기, 관상동맥CT

속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80만원 → 432만원	500만원 → 450만원
1. 소화기검진 : 헬리코박테리아(혈청),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2. 심장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검진 : 저선량 흉부 CT / E. 알코올 : PET-CT 5. 핵심검진 : 경동맥, 요추MRI 6. 대변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6굴판CT 7. 남성검진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 8. 기타 : 변질촬영, 치과X-선촬영	1. 소화기검진 : 헬리코박테리아(혈청), 대장내시경수술, 복부6굴판CT 2. 심장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검진 : 저선량 흉부 CT / E. 알코올 : PET-CT 5. 핵심검진 : 경동맥, 요추MRI 6. 대변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6굴판CT 7. 여성검진 : 인유무통배아검사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8. 기타 : 변질 촬영, 치과 X-선 촬영

★ 토요일검진 : 매월 2회, 4매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검진센터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G10.3469.4040 / ID: huramkorea
hurem@hurem.kr / www.hure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9)

잘못된 투자개념

미국 대통령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약 10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는 현재 일반인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정보도 신문, 방송, 인터넷, 친지, 등을 포함하여 무궁무진합니다. 이 많은 투자 정보에서 일반 투자자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투자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 돈이 돈을 만든다.

많은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 년에 \$30,000을 버는 사람이 \$1,500(5%)을 7%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150,000이 됩니다.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똑같이 부여되기에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 투자 시작이 어렵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처

음에는 뮤추얼 펀드 회사를 통해서 브로커지 계좌(Brokerage Account)나 개인 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401(k), 403(b), TSP 등을 통해서 투자 시작하면 됩니다

* 투자는 도박이다.

투자를 도박처럼 하기에 도박이 됩니다. 지난 90년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은 약 10%입니다. 수익률 10%는 7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인내와 함께 꾸준히 투자하면 이러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 대박’을 기대하며 투자하기에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 투자 시장은 조작이다.

페니 주식(Penny Stocks) 등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전체를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투자 사기를 경험했거나 투자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

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낙관적인 마음과 함께 꾸준히 장기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 과거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과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 년 동안 성적이 부진했던 종목을 팔아서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로 옮겨 탑니다.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경험, 정보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기에 어떤 특정한 펀드가 계속 잘할 수도 없고 반대로 계속 못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믿어야 합니다.

* 주식에 도사(?) 같은 사람이 있다.

주식 전문가 혹은 도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 좋은 투자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투자하다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주위에 투자 잘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그 속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 특정한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꼭 보유해야 하는 투자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종목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부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매일 검토(Check)합니다. 하루에 변할 수 있는 5% 등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투자 결정하면 투자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00만 불 목표 달성.

100만 불로 투자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의료비 등은 계속 증가하므로 100만 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가능한 많은 투자로 장기간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자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현재까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새로운 클로징 규정

2008년의 금융 파동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률이 드디어 2015년 8월 1일을 시작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는 2008년의 금융 파동이 모기지사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악의적 모기지의 파급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들을 통과 시켰고,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모기지태에 대한 관점은 ‘주택매매에서 구입방법의 한가지 수단’이었는데, 이번 법개정에서는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모기지가 주가 되고, 주택매매는 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사용하게 되는 클로징 서류는 90%가 모기지에 대한 내용이고, 10% 정도만이 주택매매에 대한 내용이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 금융보호국) - 정부에서는 2008년의 금융 파동 후에 이를CFPB방지하기 위해서 CFPB를 개설했다. CFPB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기업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벌금을 내리고 있다. 이 기관이 주택매매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심사, 감독, 처벌하는 것이다. 규정을 어기는 금융회사들은 매일 백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몇일 벌금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Consummation - 주택매매의 클로징, 세틀먼트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Consummation (완성)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HUD-1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Loan Estimate Disclosure - GFE, TIL 등의 융자조건 서류는 Loan Estimate Disclosure로 바뀌게 된다. 이 서류에 이자율, 융자금액, 수수료 등이 제공된다. 이 서류는 소비자에게 융자신청 3일 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서류에 제공된 내용과 클로징하는 날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만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소한 3일 이상 다시 기다려야 한다.

Closing Disclosure - 세틀먼트에서 제공되었던 HUD-1은 모두 Closing Disclosure로 대체된다. 이전 서류와 마찬가지로, 융자제공 당시와 같아야 하는 부분과 10%까지 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융자회사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융자신청때와 같아야하고, 세금이나 정부등기비용등은 10%까지 변할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처음보다 많은 액수를 다운페이먼트를 하려하면, 모든 서류들이 다시 수정되어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나야 클로징

이 가능하다.

클로징서류제공자 - 현재 클로징 서류는 타이틀회사/세틀먼트회사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하기가 수월하다. 최근에 지불한 HOA 비용, 모기지 비용등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클로징 서류 제공자가 은행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로, 웰스파고 은행은 클로징 서류를 직접 작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모든 내용이 클로징 3일 전에는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오류, 소비자의 이름 오타등도 세틀먼트회사에서 수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웰스파고 본사로 수정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담당 융자은행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지, 세틀먼트회사에 맡기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수정법들이 부동산 거래법과는 거리를 두고 행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바이어가 정해진 날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 되어있다. 가령, 클로징을 하려는데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을 신청해서 다시 3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셀러는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파기와 함께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이사했기에 지출한 비용, 다른 오퍼에 팔지 못한 금전적 손실도 요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이전트의 능력이 커미션의 액수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식으로 Closing Statement (CD)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를 완전히 바뀌는데는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100% CD를 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CD를 쓰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칸 영화제에서 쏟아진 전세계의 극찬과 환호!
올여름 사상 최악의 재난과 맞서라!



OFFICIAL SELECTION
OUT OF COMPETITION
FESTIVAL DE CANNES

끝까지 살아남아라



"역대 칸느 영화제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작"

- 칸 영화제 집행 위원장 리에리 프레모 -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수안 줄무로 호화군단 열연!
칸느의 숨겨진 세계적 비주얼 마스터 연상호 감독!
천만 영화 흥행 제작진이 만든 최고의 스캐일!

부산행

**TRAIN
TO
BUSAN**

공유 | 정유미 | 마동석 | 김수안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7월 22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RAINTOBUSAN-MOVIE.COM [f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세기 마약 전쟁사—마약 그리고 “뉴 짐크로우”

짐 크로우법 (Jim Crow Laws)

남북전쟁의 결과로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다시 몇 년 뒤 비준되는 수정헌법 14조는 "모든 미국 시민은 시민으로서 법앞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미국시민"이라는 이 수정헌법 조항의 전제가 있기때문에, 더이상 노예가 아닌 흑인들은 백인과 다르게 취급되거나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였다. 1876년 미국 대선 이후 연방정부 주도의 재건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남부의 흑인들은 새롭게 획득한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는 커녕 심한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남부의 여러 주들은 일명 "짐크로우법"을 통과시키고, 상위법인 수정헌법 14조를 무력화시켰다. 공공기관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흑인과 백인은 '합법적으로'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흑인들은 경제적 기회, 교육의 기회 등이 제한되었다. 흑인들은 백인들과는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좌석에 앉고, 다른 식수대를 사용하고, "개와 흑인은 출입금지"라는 안내문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이를 통해서 흑인들의 시민권은 사실상 2등시민 상태에 머물렀다.

게다가 많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수정헌법 15조에서는 "과거의 예측상태를 이유로 미국 시민의 투표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으나, 남부의 현실에서는

"과거의 예측상태"가 아닌 문맹 테스트, 투표세, 조부조항 (Grandfather's Clause: 1866년 이전에 투표권이 있었던 이, 혹은 그들의 자손의 투표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과 같은 장치들 통해 흑인들의 투표권은 사실상 박탈당한 것과 다를 없었다.

1896년 대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근거를 내세워 짐크로우법을 지지했다. 1954년 브라운 판결(Brown vs.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이 "공교육에서의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며 플레시 판결을 뒤집고, 1955년 로자 파크스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 승리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 결과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등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짐크로우법은 폐지되었다.

대량투옥의 시대, 그리고 뉴 짐크로우

그러나 짐크로우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인종간 분리가 사라지는 않았다. 레이건 행정부시절을 시작으로하여 지금까지 약 30여년 간 미국의 교도소에는 수감자의 수가 늘었다.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 10만명당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구의 수는 698명으로, 2위인 러시아의 10만명당 446명, 3위인 르완다의 10만명당 434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특히 이 대량 투옥 (Mass-incarceration)의

시대, 흑인들의 재소자 비율은 더욱 기이하게 늘어났다. 아주 최근에 들어 백인 재소자수 대비 흑인 재소자의 수가 소폭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미국의 18세 이상 남성중 백인은 106명 중 1명 꼴로, 라티노는 36명 중 1명 꼴로, 그리고 흑인들은 15명 중 한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자면 흑인이나 라티노들이 백인들에 비해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나 혹은 더 폭력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미국은 수감자수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은걸까? 왜 그 중에서 흑인들의 (그리고 라티노들의) 비율이 특히 높은걸까? 미국의 전체 수감자 중 마약사범의 비율이 폭력범죄의 비율보다 높다. 2014년의 경우 마약관련 범죄로 체포된 케이스가 150만 건이었고, 그중 80% 가량은 단순한 '소지'로 인한 체포였다. 그러나 연방 감옥의 모든 재소자 중 마약관련 사범은 절반을 넘는다. 이제 또 다른 통계를 보자. 연방 교도소에서 마약과 관련 법을 위반해서 수감된 재소자중 백인의 비율은 20%, 그리고 흑인과 라티노의 비율은 각각 약40%에 달한다. (주 교도소의 경우에도 백인의 비율은 30%가량, 흑인과 라티노의 비율은 총 60%가량이다.)

혹시 흑인들의 마약 중독 비율이 백인들보다 훨씬 높은걸까? 오히려 반대다. 여기서 흥미로운 법. 미국은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

지기는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감형 없이 최소 5년, 10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최소형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미있게도 최소 형량제의 기준이 다분히 임의적이다. 가령 효과와 성분은 별로 다르지 않은 두 약물, 크랙 코케인과 파우더 코케인의 경우. 가격이 싼 크랙 코케인은 5그램을 소지했을 때 최소 5년형, 반면 값 비싼 파우더 코케인은 500g을 소지했을 때 5년형이다.

그런데 대량 투옥상태에 있는 흑인들 중 1/3은 마약관련법 위반이고, 그 중 80%는 단순한 소지에 의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라면? 사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둘째치고, 현재의 “대량투옥” 현실은 소수인종 가족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흑인 어린이들은 아홉명에 한 명꼴로 부모가 수감중이다. 라티노 어린이의 경우 28명에 한명, 백인 어린이는 57명에 한명꼴로 수감중인 부모를 뒀다. 게다가 단순마약사범들이 교도소에서 오히려 폭력 전과자와 접촉하게 되거나, 출소 후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다수의 흑인들이 또 다시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종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의 대량 투옥의 면면은 사실상 "뉴 짐크로우"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마약소지법 위반) 재소자로 넘쳐나는 감옥은 진짜로 처벌해야하는 폭력 범죄자를 수용할 공간적인 여력이 없다.

(다음주에 계속)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상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저희 본사가 있는 뉴저지 포트리에에는 많은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최근 올 초 오픈한 강호동의 백정에 가서 차를 기다리면서 끊임 없이 들어오는 고객을 보면서 저와 함께 간 지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봤자 뻔 하고 어떤 때는 식당 하나 잘 해서 프랜차이즈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앉아서 프랜차이즈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라며 푸념하셨습니다. 물론 식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초와 노력을 모르고 쉽게 한 말이지만 분명 가맹점 영업권이라고 번역되는 프랜차이즈는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이름, 상표, 독특한 서비스 혹은 상품, 마케팅 노하우 등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등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 산업 분야에서 부터 마이다스(Midas)와 같은 자동차 정비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저희들의 생활에 매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

에게 부여하고 2)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3)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혹은 느슨하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상표권만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는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맹비만 지불하면 프랜차이즈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뉴저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뉴저지 사업체라도 사업체의 지난 12개월 간 상품 혹은 서비스의 총 매출 (gross sales)이 \$35,000을 넘고 가맹점의 총 매출의 20% 이상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주의 프랜차이즈 법을 적용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 법이 동시에 규정합니다. 연방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수익성 포함 총 23개 영역에 대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최소

14일 전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FTC FDD format이라고 부르는 연방 통상 위원회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많은 규정들 중의 하나로 만약 규정 중 일 부라도 어기는 경우 위반 건 당 \$16,000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사업자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위반이 없도록 만전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 마다 의무로 하는 서류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가 하면, 어떤 주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자료인 FTC FDD까지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의 주 법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법 (Franchise Practices Act, 56:10-1~)"라고 불리는 주 법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뉴저지 법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간 힘 차이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뉴저지 주법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권한을 취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취소, 정지하기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관계가 끝나기 15일 전에 공식 서류를 가맹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뉴저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 안 좋은 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다른 주에서는 프랜차이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뉴저지에서는 해당이 안될 수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표권 등록은 사업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 법과 상관없이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프랜차이즈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시작부터 주와 연방 규정을 따라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겠습니다.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본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수송
이민법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
사고 손해
상법
채권, 상속, 유언
수송
이민법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지식 재산권
타겟,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금법

Songlawfirm1

Song law firm LLC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HORRNET
New Jersey

WASHINGTON
DC

FLUSHING
New York

EDISON
New Jersey

SAN DIEGO
California

SEOUL
Korea

HANGZHOU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형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책을 시험문제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교육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